

성평등 인식 설문 결과

최병조(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배경

-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SDGs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삶 속에 성평등과 돌봄을 논의하고 있음
- 전국성평등네트워크의 사업으로 공동 활동에 대한 요구 높고
- 기존의 성평등 체크리스트 조사나 세미나를 벗어나 현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하기 위한 기초자료 필요

□ 경과

설문에 13개 지역에서 1,084명의 설문이 모아졌다. 경기에서 수원, 안양, 평택은 응답자가 적어 이 3개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했고 충남의 아산과 당진도 응답자가 적어서 합쳐서 하나의 지역으로 분석했다. 응답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또는 활동 참여자였다. 설문은 기본 사항은 성별, 거주지, 연령대, 최종 학력, 결혼 유무, 월 소득(세전)이고, 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공과금 납부, 생활비 운영, 저축, 친족 관계 및 애경사)에 대한 주도적 관리, 금융 및 부동산에 관한 결정, 집, 상가 및 오피스텔, 토지에 대한 명의, 일하고 있는 곳 남녀의 업무 구분 채용, 일하고 있는 직장의 임원직/고위직 상사의 남녀 비율,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일 노동에 대해서 남녀 차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귀하의 생각, 주변에서 재산 상속에 남녀(아들/딸)가 다르게 대우받은 것, 성평등한 생각과 실제 생활의 차이, 자녀 세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과 실천의 필요이고, 돌봄에 대한 내용은 가족 안에서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 영역, 돌봄의 장소, 현재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현재 돌봄이 귀하의 삶에 미치는 영향, 현재 돌봄에 사용되는 한 달 평균비용으로 했다. 분석은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기본 사항과 성평등, 돌봄에 대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활동으로 설문 만들고 조사함
- 전국성평등네트워크 활동의 바탕이 될 수 있고, 지역의 성평등과 관련된 기초자료 마련 차원에서 설문을 하기로 함
- 전국의 13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가
- 일상에서 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

□ 결과 요약

□ 기본 사항

- 권역은 경기를 단일로 하고, 충북과 강원은 제천과 원주로 같은 생활권역에 속하고 있어 묶었고, 세종과 충남은 세종시를 한 권역으로, 영남은 울산, 부산, 창원으로 했다. 제주는 응답자는 적지만 문화적 차이가 커서 독립권역으로 했다.
- 지역은 13개 지역이 조사에 참여했고, 수원, 안양, 평택의 응답자가 적어서 3개 도시는 합쳤고, 충남에서는 아산과 당진의 조사자가 적어서 합쳐서 10개 지역으로 분석했다.
- 응답자의 거주지 87.3%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은 137명으로 12.7%이다.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68.8%, 남성 30.9%, 기타 0.2%이다. 여성과 남성의 응답 차이가 큰 것은 지속협의 활동에 여성의 참여가 월등히 높은 이유로 보인다.

- 가장 많은 연령은 50대로 30.9%이고 다음으로 40대 26.1%와 50대 24.1%가 비슷한 참여를 보였다. 30대와 70대는 매우 적다. 설문에 참여한 연령대의 의미는 우리의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나이를 의미한다.
- 응답자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 82.9%(대졸 61%, 대학원 21.9%)이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은 17.1%이고 국민 전체의 고졸 이하 21%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우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라는 것으로 읽힌다.
- 결혼 유무는 응답자의 81.5% 결혼, 미혼이 14.1%이고 비혼 2%와 기타 2%이다. 비혼과 기타는 다른 답변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답변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사회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 월 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 49.7%를 차지하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27.9%, 500만 원 이상이 12.8%이다. 2022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 원, 중위소득은 267만 원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낸다.

□ 성평등

- 가계 관리에서 공과금 납부를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과금 납부는 남편 27.4%, 아내 46.0%, 공동관리 23.6%로 나타났고, 남성이라는 답변은 설문 응답 남성 30%보다 낮으며 공과금은 아내가 관리가 가장 많고 공동관리와 남편 관리가 비슷한 수준이다.
- 가계 관리에서 생활비 운영을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활비 운영은 아내가 50% 이상이고 공동관리 29%이고 남편은 14.4%로 응답했다. 살림 운영을 아내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 가계 관리에서 저축을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축관리는 아내 43.7%, 공동관리 32.8%, 남편 관리 17.9%이다.
- 가계 관리에서 친족관계는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부 공동 44.1%, 아내 34.1%, 남편 18.4% 순이다. 남편보다 아내 관리가 2배 정도 차이가 있다.
- 가정의 금융 및 부동산 등은 주로 누가 결정하는지는 공동 58.4%, 아내 21.5%, 남편 16.7% 순이다. 저축관리는 아내 43.7%, 공동관리 32.8%, 남편 관리 17.9%와 비교하면 자산관리에는 공동관리가 높은 편이고 남편은 저축과 비슷한 수준이다.
- 부부의 집 명의를 남편 42.6%, 아내 28.3%, 부부 공동 23.5% 순이다.
- 부부의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명의는 부부 공동 13.6%, 아내 13.1%, 남편 11.8%로 나타났다. 집의 명의를 남편이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상가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 부부의 토지 명의 남편 26.6%, 공동 15.1%, 아내 13.9% 순이다. 상가에 비해 남편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남녀의 업무(일)를 구분해서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남녀 구분이 없다는 답변이 66.2%이고, 구분이 있다는 답변이 20.9%이다. 많은 일터에서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답변자의 대학교 졸업 이상이 82.9%라는 것을 고려하면 학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임원직/고위직 상사의 남녀 비율이 비슷한지에 대해 아니라는 답변이 44.5%이고, 그렇다고 답변이 28.0%, 중립적인 답변이 27.5%이다. 일터에서의 임원이나 고위직에 여성이 적은 것으로 답변한다. 응답자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 82.9%인데도 불구하고 임원이나 고위직이 적은 것이다.
- 일하고 있는 직장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 남녀 차이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남녀 차가 없다는 답변이 51.1%, 중립적인 답변이 27.4%이고,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 22.5%이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으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 졸업 이상이 82.9%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에 대해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6.5%이고, 결혼하면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 있다는 답변이 21.7%,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답변이 21.9%이다.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답변을 제외하면 78.2%는 결혼이 반드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결혼을 분리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변에서 재산 상속에 있어 남녀(아들/딸)가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경험에 차별 없다는 답변이

43.1%, 많다는 답변이 31.6%고, 중립적인 답변이 22.9%이다. 재산 상속에 대한 차별이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이다.

- **성평등한 생각과 실제 생활에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에 대해** 차이가 크다는 답변이 53.9%, 없다가 18.8%이고, 중립적인 답변이 27.9%이다. 인식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다.
- **자녀 세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과 실천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필요하다는 답변이 73.5%, 없다는 답변이 9.0%이고 중립적인 답변이 15.5%이다.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다. 이는 성평등의 달성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 돌봄

- **가족 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돌봄 영역**은 아이 돌봄 56.7%, 노인 돌봄 30.2%, 질병과 장애인 돌봄 13.1이다.
- **돌봄이 일어나는 장소**는 본인의 자택 61.2%, 돌봄 받는 분의 자택 20.7%, 공공기관 9.6%, 사설 기관 8.5% 순으로 나타났다.
-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3시간 41.0%, 1시간 21.9%, 6시간 20.5%, 12시간 9.3%, 24시간 7.3% 순이다.
- **돌봄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은 육체적 피로감 29.7%, 개인적인 시간 부족 24.3%, 경제적 부담 24.8%, 제도적 지원 부족 16.7% 순이다.
- **돌봄에 사용되는 한 달 평균비용**은 100만 원 내외 25.7%, 30만 원 내외 24.9%, 50만 원 내외 23.8%, 100만 원~200만 원 15.3%, 200만 원 이상 10.4% 순이다.

□ 교차분석 요약

성별 * 월 소득 교차 : 성별과 소득은 여성은 3백만 원 미만의 비율이 58.3%이고 남성은 30.3%이고, 3백만 원 이상은 여성이 30.2% 남성이 64.6%로 성별 소득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성별 * 남녀 구분 채용 교차: 남녀 구분 채용에 대해 남성이 여정보다 차별이 더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여성은 차별이 없다는 답변이 남성보다 9.1% 높다.

성별 * 직장 상사 교차: 직장 상사의 성비가 비슷하지 않다는 답변을 남성은 53.1, 여성은 42.3%이고, 비슷하다는 답변은 남성 26.0%, 여성 26.9%로 답변하고 있다. 남성이 직장 상사의 성비 불균형을 더 크다고 답변하고 있다.

성별 * 동일 노동 교차: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답변이 남성은 27.9%, 여성은 11.9%로 인식의 차이가 크고, 차별이 없다는 답변은 여성 37.8과 남성 33.1%로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다.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성별 * 결혼과 출산 교차: 결혼하면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은 17.7%, 남성은 31.4%로 인식 차이가 크고, 특히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에서도 여성은 61.3%, 남성은 45.7%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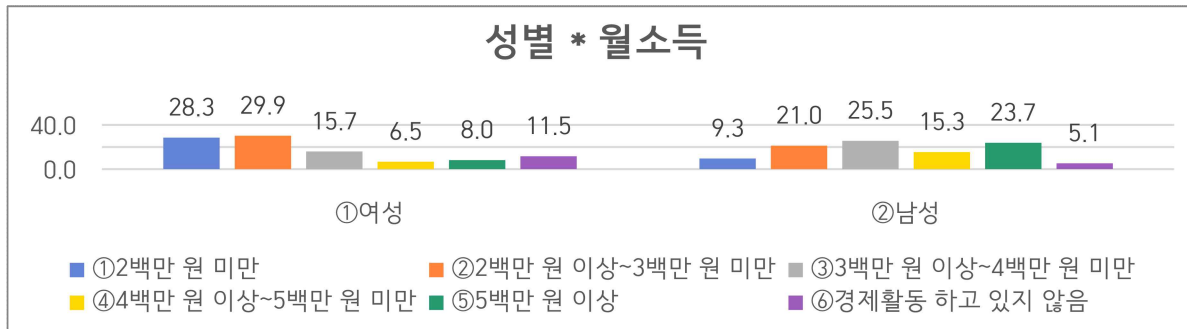
성별 * 재산 상속 교차표: 재산 상속에 대한 차별을 많이 들었다는 응답이 남성 36.6, 여성이 22.3%로 남성이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차별을 듣지 못했다는 답변은 여성이 55.1% 남성이 38.1%를 차별을 여성이 덜 느끼고 있다. 이는 상속에 대해서 차별의 주체인 남성이 여정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 여성은 상속에 대해서 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임으로써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성별 * 생각과 실제 교차: 성평등에 관한 생각과 실제의 차이가 크다는 응답에 여성이 60.1%이고, 남성이 39.6%로 여성이 문제의식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성별 * 자녀 성평등 교육 교차: 차세대의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은 여성 78.8%, 남성 66.1%로 남녀 모두 높게 응답하지만, 여성이 12.7% 더 높게 응답하며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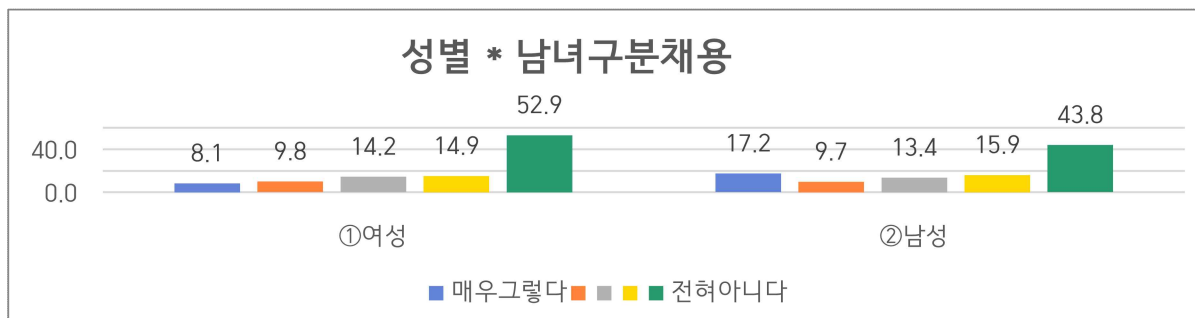
□ 결과

성별 * 월 소득 교차표							
	①2백만 원 미만	②2백만 원 이상~3백만 원 미만	③3백만 원 이상~4백만 원 미만	④4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⑤5백만 원 이상	⑥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①여성	28.3	29.9	15.7	6.5	8.0	11.5	30.2
②남성	9.3	21.0	25.5	15.3	23.7	5.1	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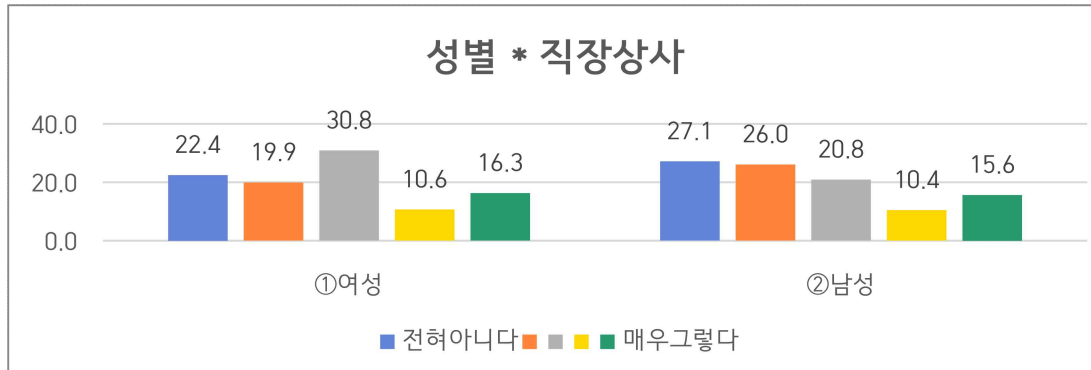
성별에 대한 소득 차이는 여성은 3백만 원 미만의 비율이 58.3%이고 남성은 30.3%이고, 3백만 원 이상은 여성이 30.2% 남성이 64.6%로 성별 소득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성별 * 남녀 구분 채용 교차표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18.0	①여성	8.1	9.8	14.2	14.9	52.9	67.8
26.9	②남성	17.2	9.7	13.4	15.9	43.8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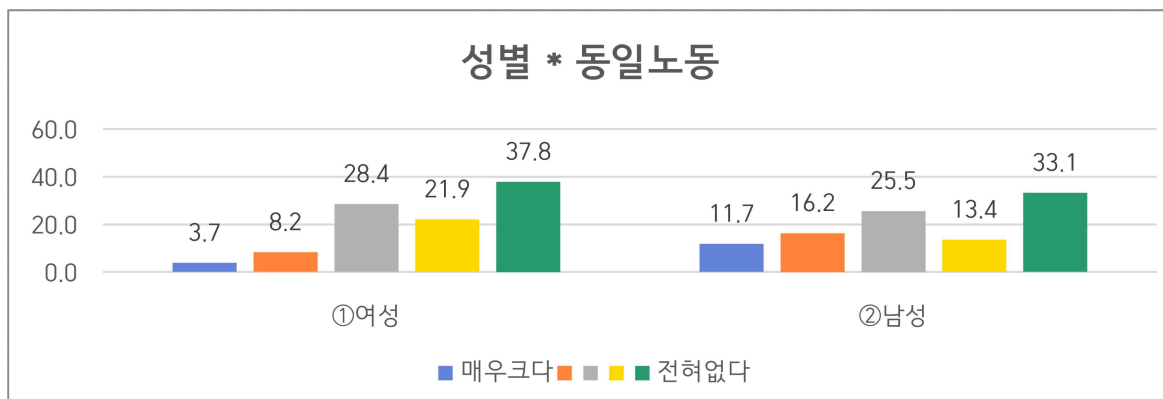
남녀 구분 채용에 대한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차별이 더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여성은 차별이 없다는 답변이 남성보다 9.1% 높다.

성별 * 직장 상사 교차표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42.3	①여성	22.4	19.9	30.8	10.6	16.3	26.9
53.1	②남성	27.1	26.0	20.8	10.4	15.6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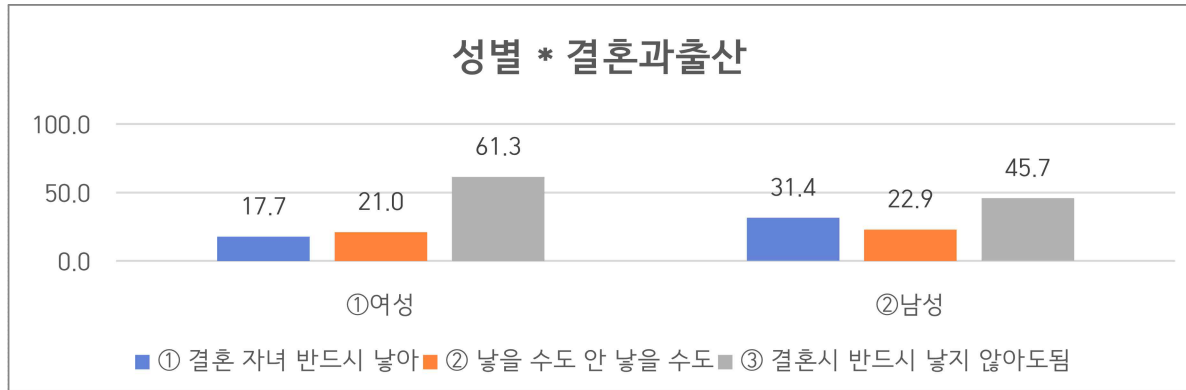
직장 상사의 성비가 비슷하지 않다는 답변을 남성은 53.1, 여성은 42.3%로 차이가 크고 비슷하다는 답변의 차이는 16% 정도로 답변하고 있다. 남성이 직장 상사의 성비 불균형을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성별 * 동일 노동 교차표							
		매우 크다.			전혀 없다.		
11.9	①여성	3.7	8.2	28.4	21.9	37.8	59.7
27.9	②남성	11.7	16.2	25.5	13.4	33.1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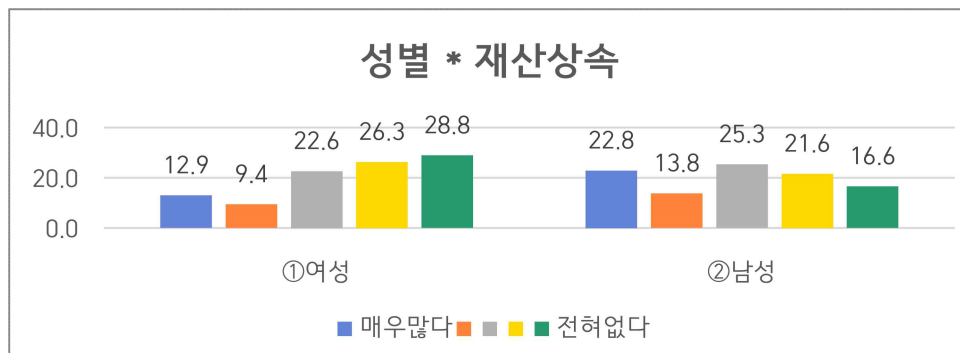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이가 있고 남성은 27.9%, 여성은 11.9%로 인식의 차이가 크고 없다는 답변은 여성 37.8과 남성 33.1%로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다. 임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성별 * 결혼과 출산 교차표				
	① 결혼 자녀 반드시 낳아	② 낳을 수도 안 낳을 수도	③ 결혼 시 반드시 낳지 않아도 됨	
①여성	17.7	21.0	61.3	82.3
②남성	31.4	22.9	45.7	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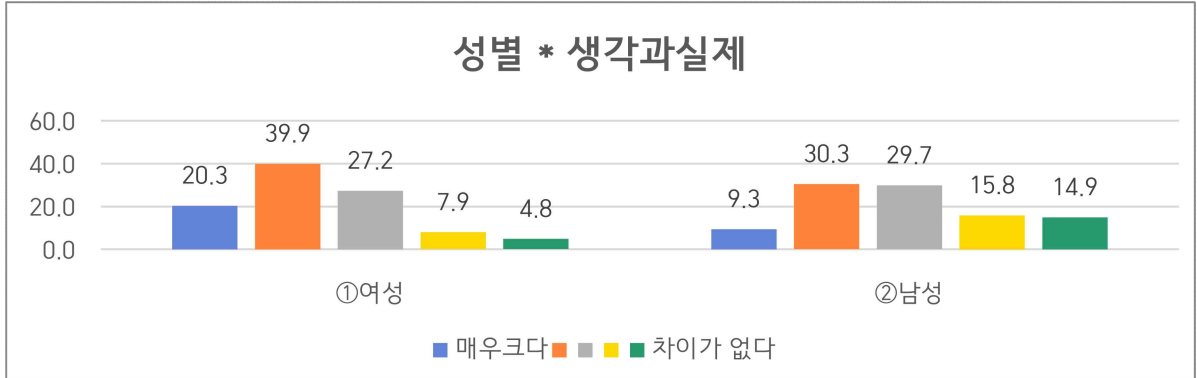
결혼과 출산에서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은 17.7 남성은 31.4%로 인식 차이가 크고 특히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다변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는 큼을 알 수 있다.

성별 * 재산 상속 교차표							
	매우 많다.				전혀 없다.		
22.3	①여성	12.9	9.4	22.6	26.3	28.8	55.1
36.6	②남성	22.8	13.8	25.3	21.6	16.6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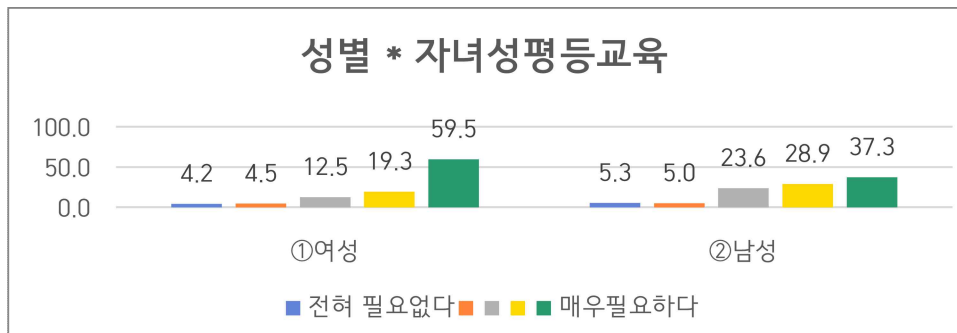
재산 상속에 대한 차별을 많이 들었다는 응답이 남성 36.6, 여성이 22.3% 이어서 남성이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없다는 답변은 여성이 55.1% 남성이 38.1%를 차별을 여성이 낮게 느끼고 있다. 이는 상속에 대해서 차별을 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차별하는 것이고, 여성은 상속에 대해서 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이므로써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성별 * 생각과 실제 교차							
		매우 크다.				차이가 없다.	
60.1	①여성	20.3	39.9	27.2	7.9	4.8	12.7
39.6	②남성	9.3	30.3	29.7	15.8	14.9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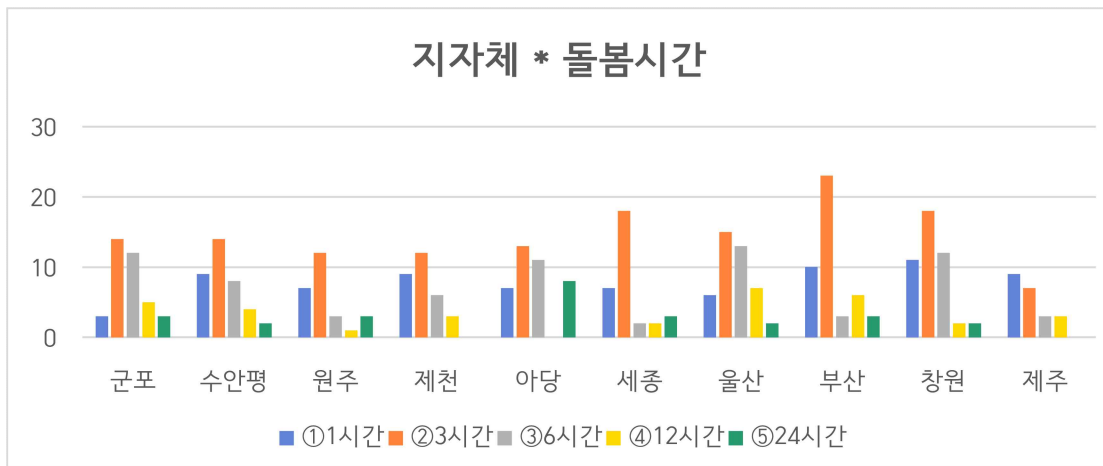
성평등에 관한 생각과 실제의 차이가 크다는 응답에 여성이 60.1%이고, 남성이 39.6으로 여성이 문제 의식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성별 * 자녀 성평등 교육 교차							
		전혀 필요 없다.				매우 필요하다.	
8.7	①여성	4.2	4.5	12.5	19.3	59.5	78.8
10.2	②남성	5.3	5.0	23.6	28.9	37.3	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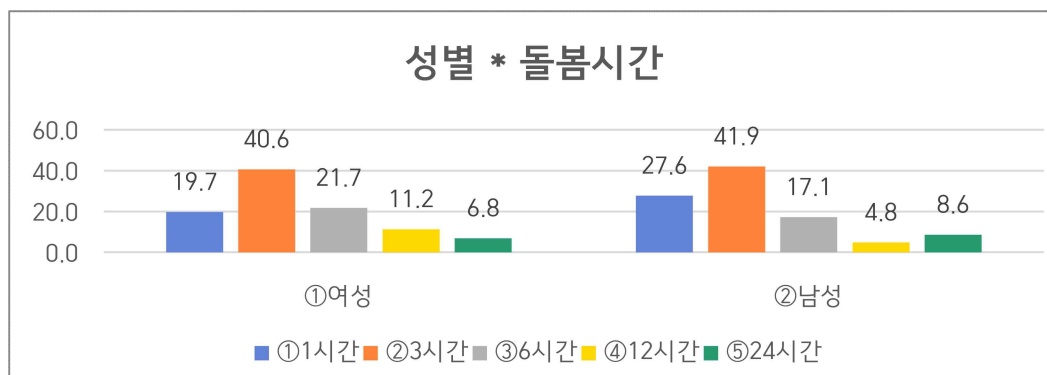
차세대의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은 여성 78.8%, 남성 66.1%로 남녀 모두 높게 응답하지만, 여성이 12.7% 더 높게 응답하며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자체 * 돌봄 시간 교차표				
	①1시간	②3시간	③6시간	④12시간	⑤24시간
군포	8.1	37.8	32.4	13.5	8.1
수안평	24.3	37.8	21.6	10.8	5.4
원주	26.9	46.2	11.5	3.8	11.5
제천	30.0	40.0	20.0	10.0	0.0
아당	17.9	33.3	28.2	0.0	20.5
세종	21.9	56.3	6.3	6.3	9.4
울산	14.0	34.9	30.2	16.3	4.7
부산	22.2	51.1	6.7	13.3	6.7
창원	24.4	40.0	26.7	4.4	4.4
제주	40.9	31.8	13.6	13.6	0.0
평균	21.9	41.0	20.5	9.3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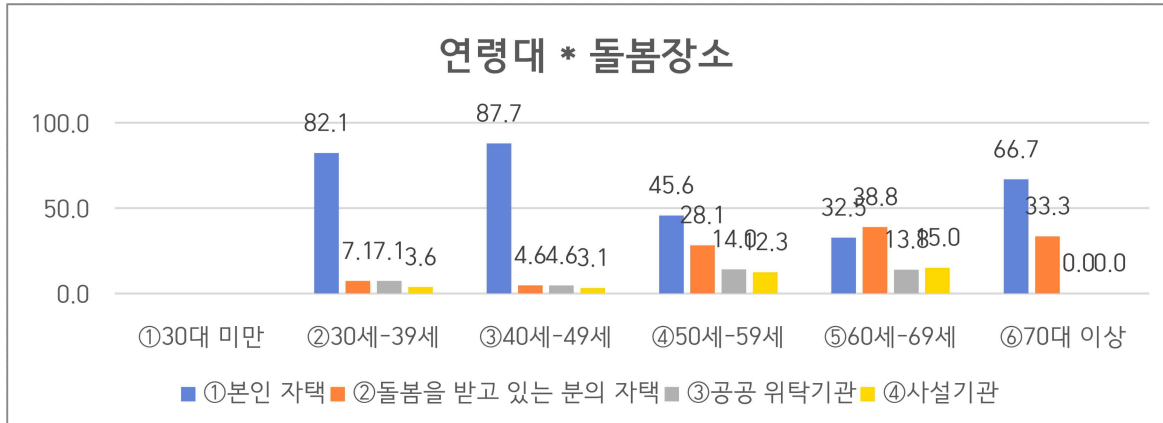
돌봄이 시간은 3시간이 41.0%, 1시간 21.9%, 6시간 20.5%로 6시간 이내의 돌봄이 83.4%였다. 24시간 돌봄이 7.3%였고 아산 당진지역인 제일 높았고 제주는 응답이 없었다.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 곳은 제주가 1시간 40.9%로 나타난 것이다.

	성별 * 돌봄 시간 교차표				
	①1시간	②3시간	③6시간	④12시간	⑤24시간
여성	19.7	40.6	21.7	11.2	6.8
남성	27.6	41.9	17.1	4.8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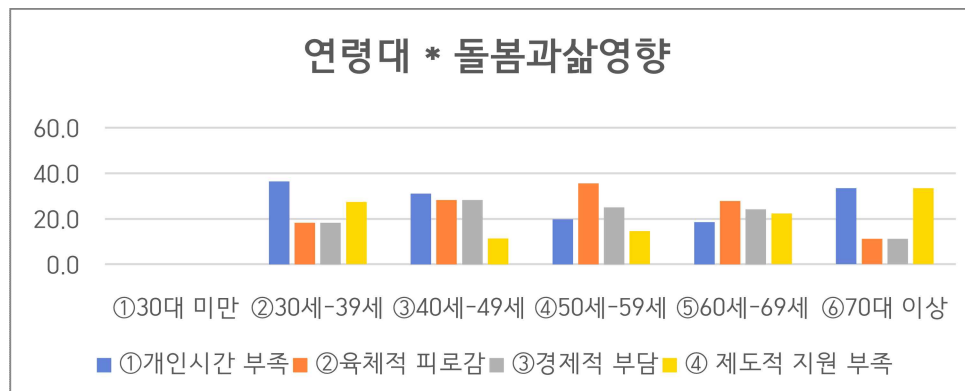
돌봄 시간은 1시간 돌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12시간 돌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연령대 * 돌봄 장소 교차표				
	①본인 자택	②돌봄을 받는 분의 자택	③공공 위탁기관	④사설 기관
①30대 미만				
②30세~39세	82.1	7.1	7.1	3.6
③40세~49세	87.7	4.6	4.6	3.1
④50세~59세	45.6	28.1	14.0	12.3
⑤60세~69세	32.5	38.8	13.8	15.0
⑥70대 이상	66.7	33.3	0.0	0.0
평균	61.2	20.7	9.6	8.5



돌봄의 장소로 자택을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30대 82.1%와 40대 87.7%이다. 돌봄을 받고 있는 집으로 높게 나타난 나이는 50대와 60대였다.

연령대 * 돌봄과 삶 영향 교차표				
	①개인 시간 부족	②육체적 피로감	③경제적 부담	④ 제도적 지원 부족
①30대 미만				
②30세~39세	36.4	18.2	18.2	27.3
③40세~49세	31.0	28.2	28.2	11.3
④50세~59세	19.7	35.5	25.0	14.5
⑤60세~69세	18.5	27.8	24.1	22.2
⑥70대 이상	33.3	11.1	11.1	33.3
평균	24.3	29.7	24.8	16.7



돌봄이 영향에 대해서 나이별로 30대와 40대는 개인 시간 부족을 50대는 육체적 피로감을 높게 답변했다. 제도적 지원의 부족은 30대가 높게 응답했다.

□ 의미와 활용

- 전국대회를 준비하면 설문을 하기로 결정하여 설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이 미흡했고
- 설문 기간에 추석 등 연휴 등으로 설문 취합과 분석에 시간적 제약이 많았음
- 설문 대상이 지속가능발협의회 위원과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 인구비례 등 사회학적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 조사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전국성평등네트워크에서 공동의 활동을 시행한 것에 의미가 큼
- 향후 설문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통계를 반영하여 조사로 발전시킬 수 있음

□ 통계량

질문	지자체	성별	거주지	연령대	최종학력	결혼유무	월소득
유효	1084	1077	1077	1078	1075	1076	1075
결측	0	7	7	6	9	8	9

질문	공과금납부	생활비운영	저축	친족관계	금융과부동산
유효	902	897	887	885	899
결측	182	187	197	199	185
질문	재산집	재산상가	재산토지	남녀구분채용	직장상사
유효	891	619	714	882	874
결측	193	465	370	202	210
질문	동일노동	결혼과출산	재산상속	생각과실제	자녀성평등교육
유효	880	1066	1058	1062	1063
결측	204	18	26	22	21

질문	돌봄영역	돌봄장소	돌봄시간	돌봄과삶영향	돌봄비용
유효	1050	363	356	222	366
결측	34	721	728	862	718

□ 기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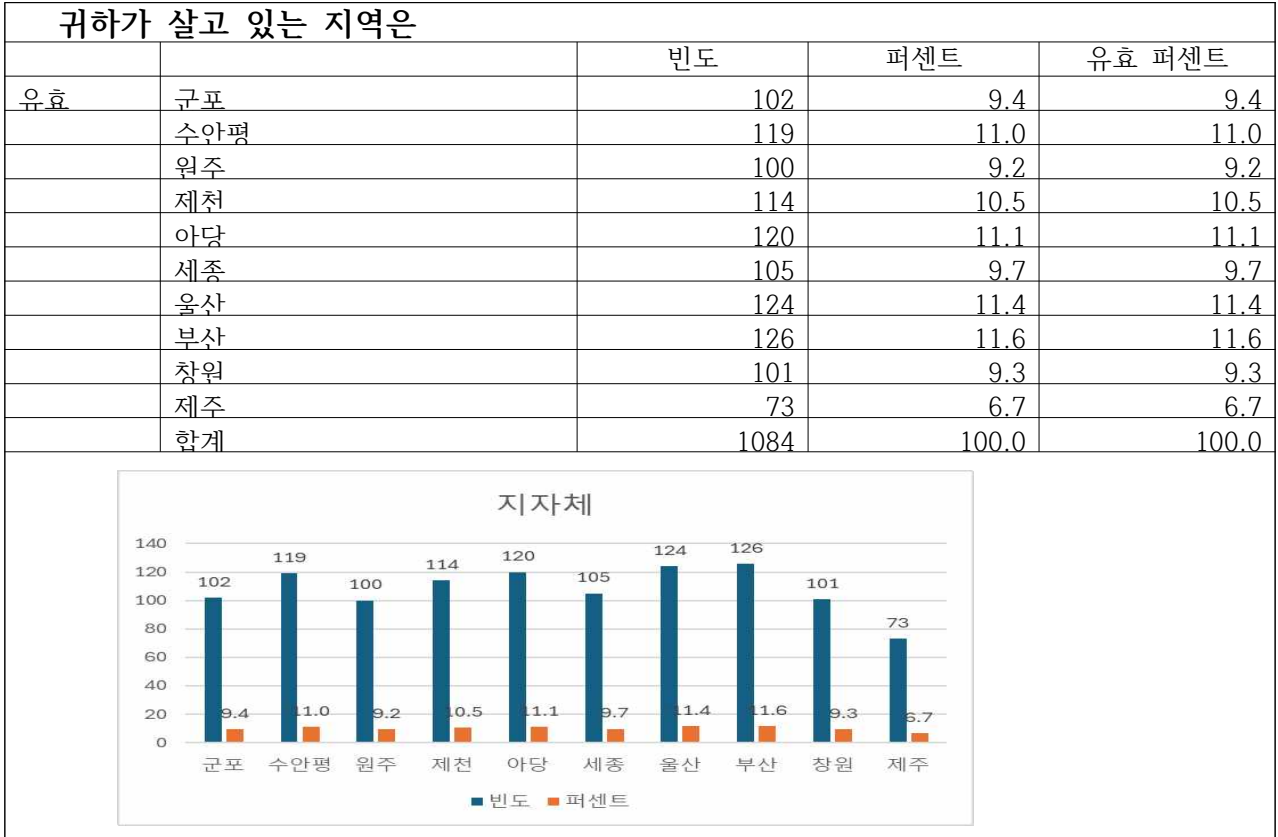
살고 있는 권역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경기	221	20.4	20.4
	충북강원	214	19.7	19.7
	충남세종	225	20.8	20.8
	영남	351	32.4	32.4
	제주	73	6.7	6.7
	합계	1084	100.0	100.0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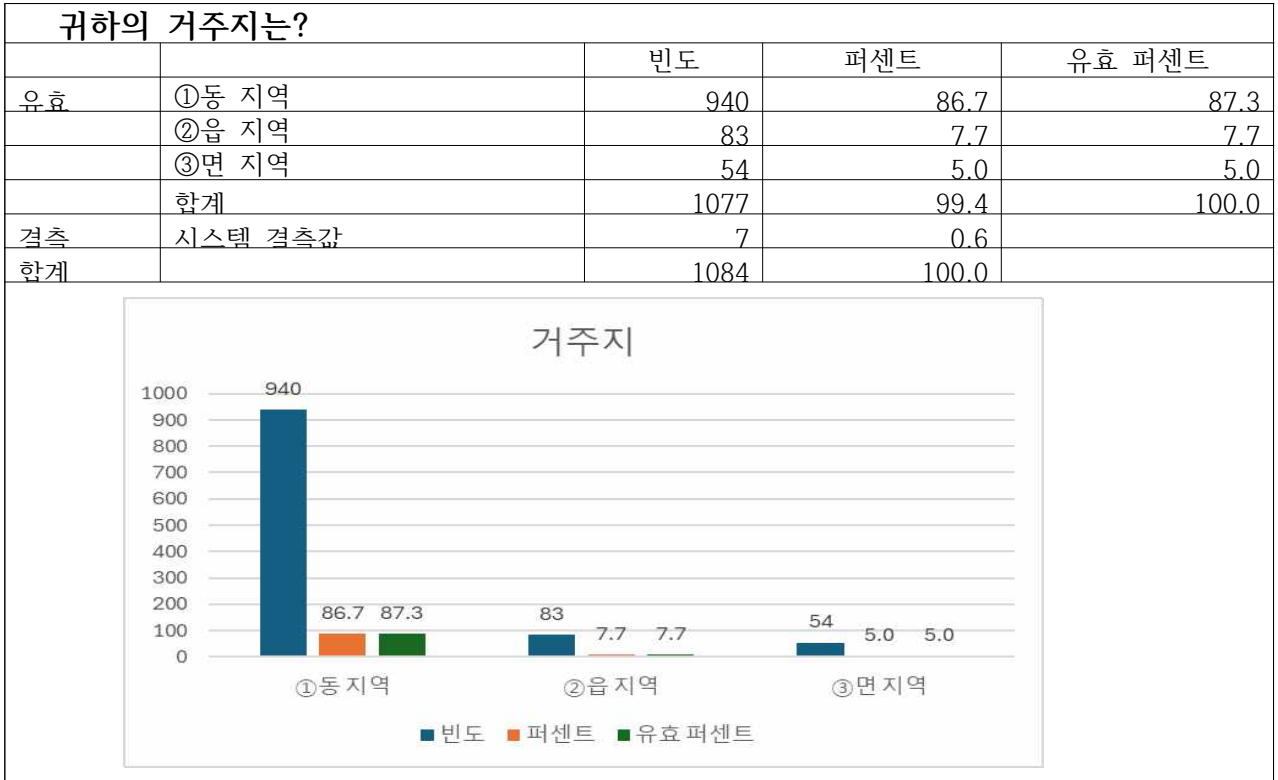
권역	빈도	퍼센트
경기	221	20.4
충북강원	214	19.7
충남세종	225	20.8
영남	351	32.4
제주	73	6.7

권역은 경기를 단일로 하고, 충북과 강원은 제천과 원주로 같은 생활권역에 속하고 있어 묶었고, 세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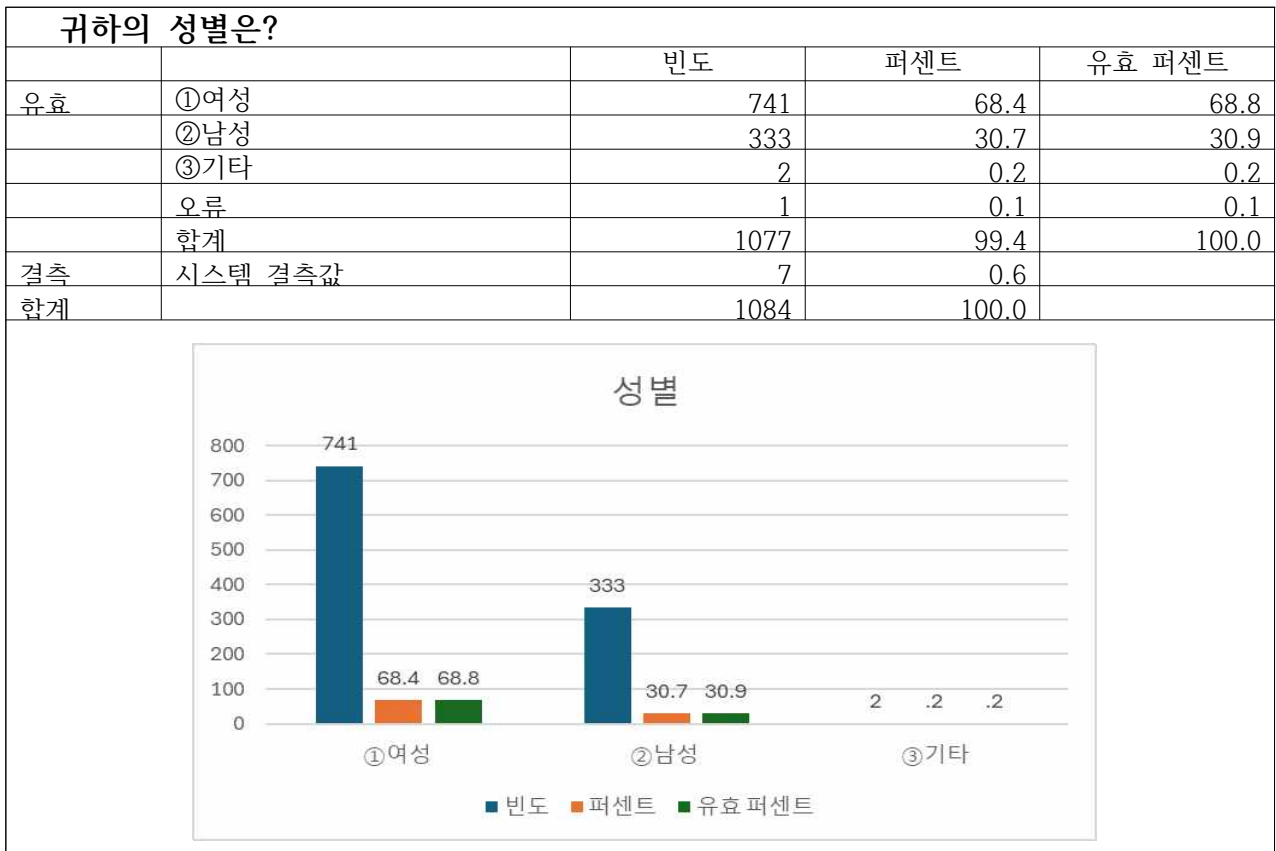
충남은 세종시를 한 권역으로, 영남은 울산, 부산, 창원으로 했다. 제주는 응답자는 적지만 문화적 차이가 커서 독립권역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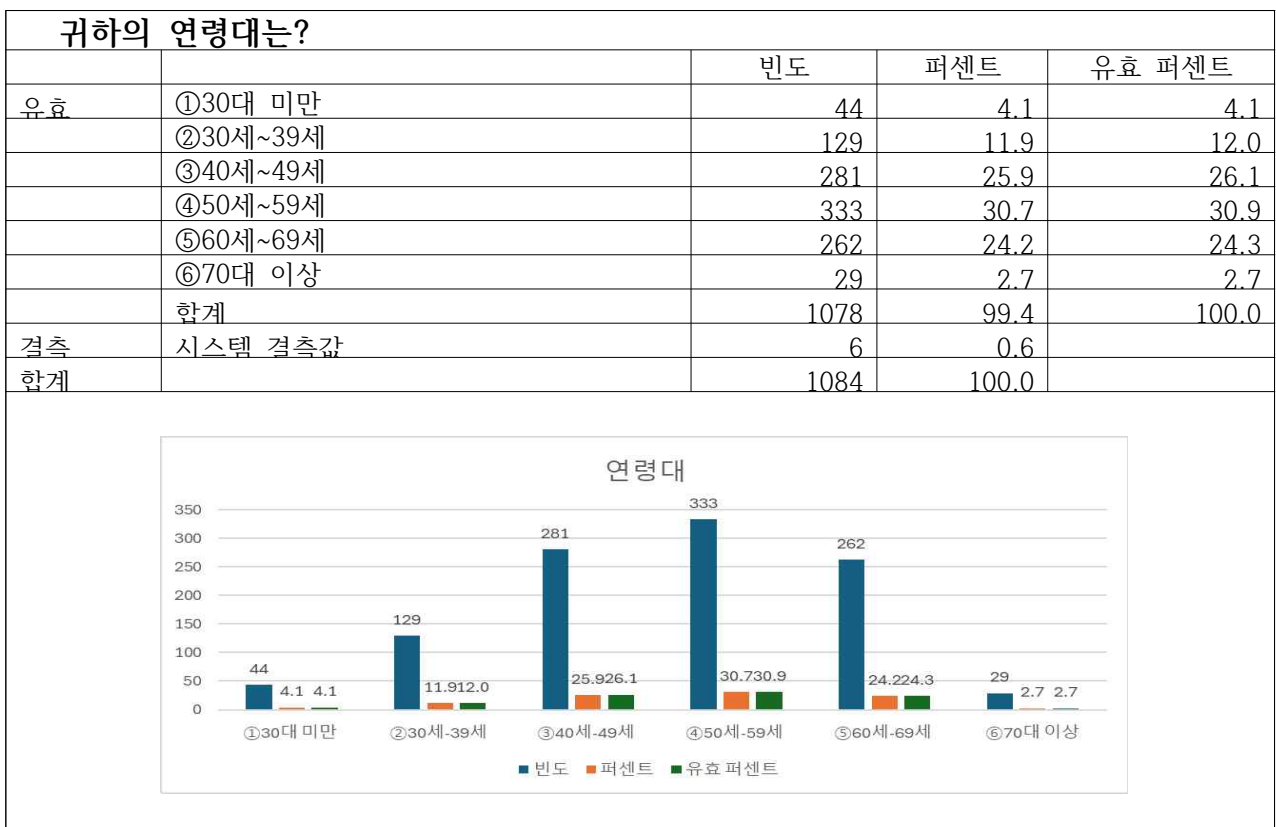
수원, 안양, 평택의 응답자가 적어서 3개 도시는 합쳤고, 충남에서는 아산과 당진의 응답자가 적어서 두 지역을 하나의 분석 지역으로 했다.



응답자의 87.3%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은 137명으로 12.7%이다. 응답자의 치우침이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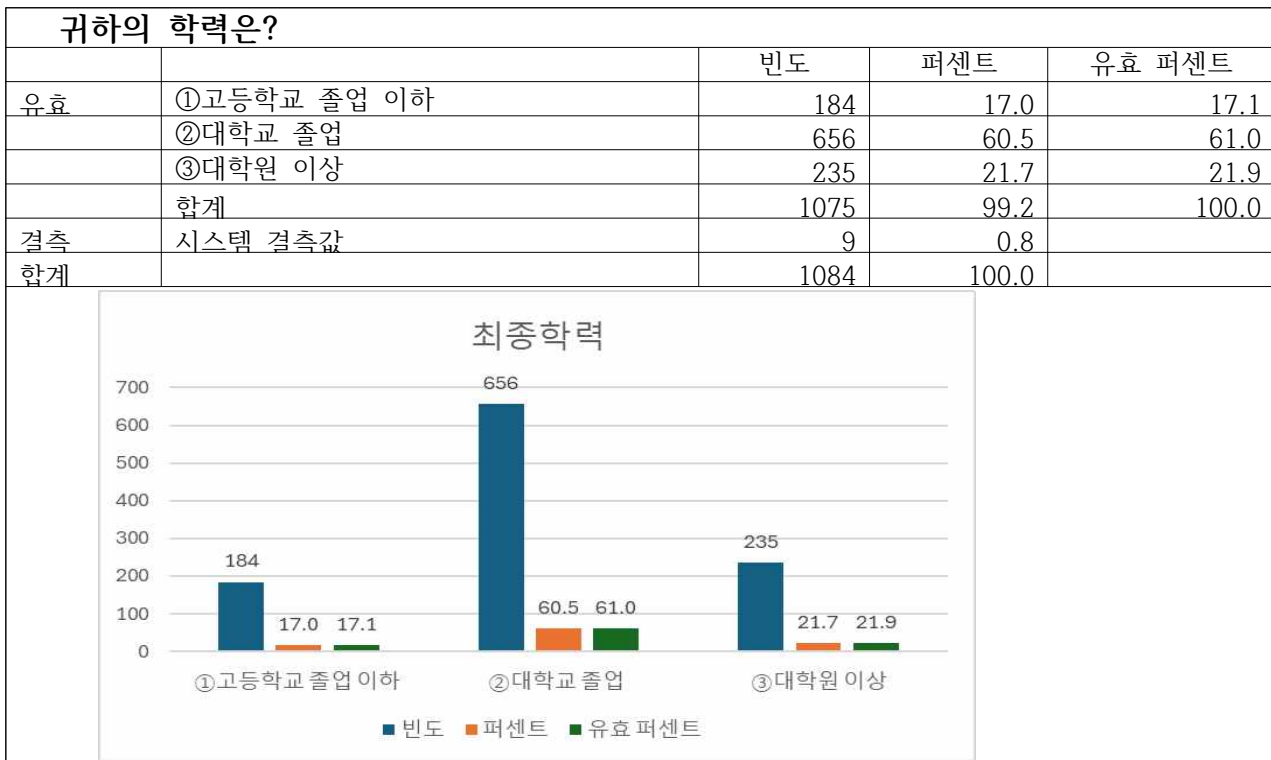


결측을 제외한 유효 퍼센트는 여성 68.8, 남성 30.9, 기타 0.2 오류 0.1이다. 오류는 중복 응답으로 생각된다. 여성과 남성의 응답 차이가 큰 것은 지속협의 활동에 여성의 참여가 월등히 높은 이유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연령대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나이를 의미한다. 가장 많은 연령이 50대로 30.9%이고 다음으로 40대 26.1%와 50대 24.1%가 비슷한 참여를 보였다. 30대와 70대는 우리의

활동에 참여가 낮은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 수준은 25~64세 성인인 거 중 고졸 이상 학력자는 91%, 고등교육 이수자는 53%를 차지('22년)하고 있다. 응답자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 상이 82.9%로 국민 25~64세 성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 53%보다 크게 응답자 학력이 높고,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은 17.1%로 국민 학력보다 약 21% 낮다. 이는 우리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라는 것으로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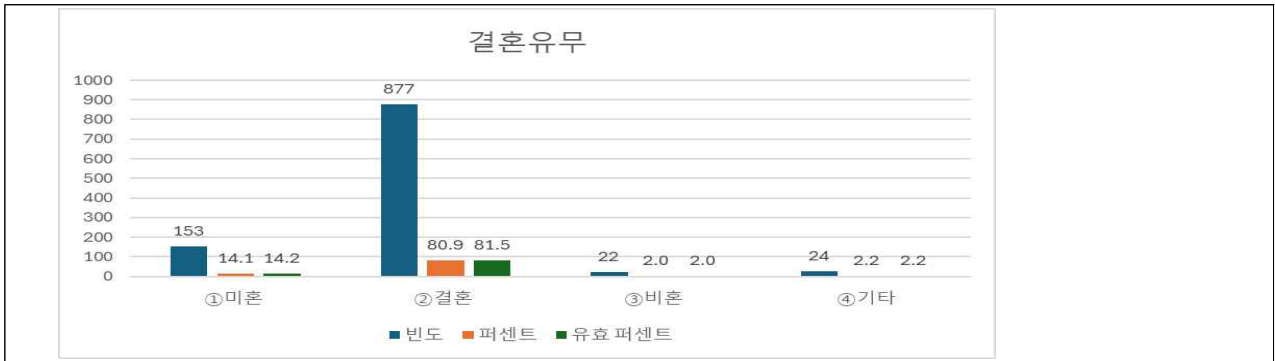
성별 * 최종 학력 교차

성별과 학력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 학력은 여성이 높지만, 대학원 이상은 여성보다 남성이 10% 정도 높은 것으로

연령대 * 최종 학력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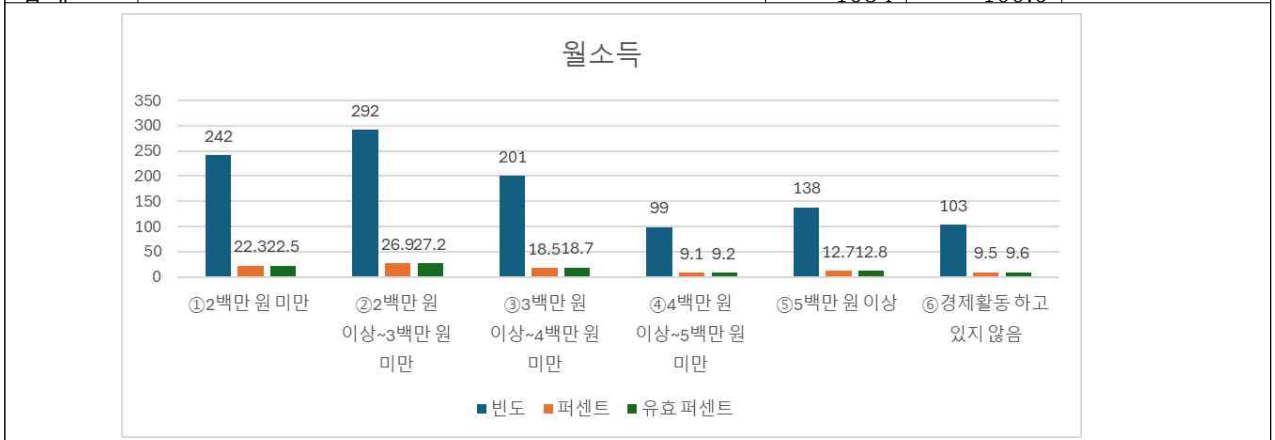
집의 명의가 남편일 때 나이가 젊어질수록 높게 나타난다. 토지의 명의도 30대를 제외하면 나이가 젊어질수록 남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귀하의 결혼 유무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①미혼	153	14.1	14.2
	②결혼	877	80.9	81.5
	③비혼	22	2.0	2.0
	④기타	24	2.2	2.2
	합계	1076	99.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0.7	
합계		1084	100.0	



응답자의 81.5% 결혼, 미혼이 14.1%이고 비혼 2%와 기타 2%이다. 비혼과 기타는 다른 답변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미혼과 결혼 이외의 답변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사회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귀하의 월 소득은(세전) 얼마인가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①2백만 원 미만	242	22.3	22.5
	②2백만 원 이상~3백만 원 미만	292	26.9	27.2
	③3백만 원 이상~4백만 원 미만	201	18.5	18.7
	④4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99	9.1	9.2
	⑤5백만 원 이상	138	12.7	12.8
	⑥경제활동 하고 있지 않음	103	9.5	9.6
	합계	1075	99.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0.8	
합계		1084	100.0	



월 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 49.7%를 차지하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27.9%, 500만 원 이상이 12.8%이다. 2022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 원, 중위소득은 267만 원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낸다.

권역 * 월 소득 교차
월 소득의 차이가 많은 지역은 제주이고 3백만 원 미만의 소득이 71.2%이고 다른 권역은 50% 안팎이다.

지자체 * 월 소득 교차
3백만 원 미만의 소득이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으로 54.8%였고, 4백만 원 이상 수입이 가장 많은 지역도 울산으로 31.5%였다. 3백만 원 미만의 수입자가 많은 지역은 원주로 79.0%였고, 4백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와 아산 당진지역으로 15.1%였다.

성별 * 월 소득 교차
성별에 대한 소득 차이는 여성은 3백만 원 미만의 비율이 58.3%이고 남성은 30.3%이고, 3백만 원 이

상은 여성이 30.2% 남성이 64.6%로 성별 소득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최종 학력 * 월 소득 교차

학력이 대학교 이하는 3백만 원 미만의 소득이 54% 정이고 대학원 이상은 3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65.1%로 대학원을 중심으로 소득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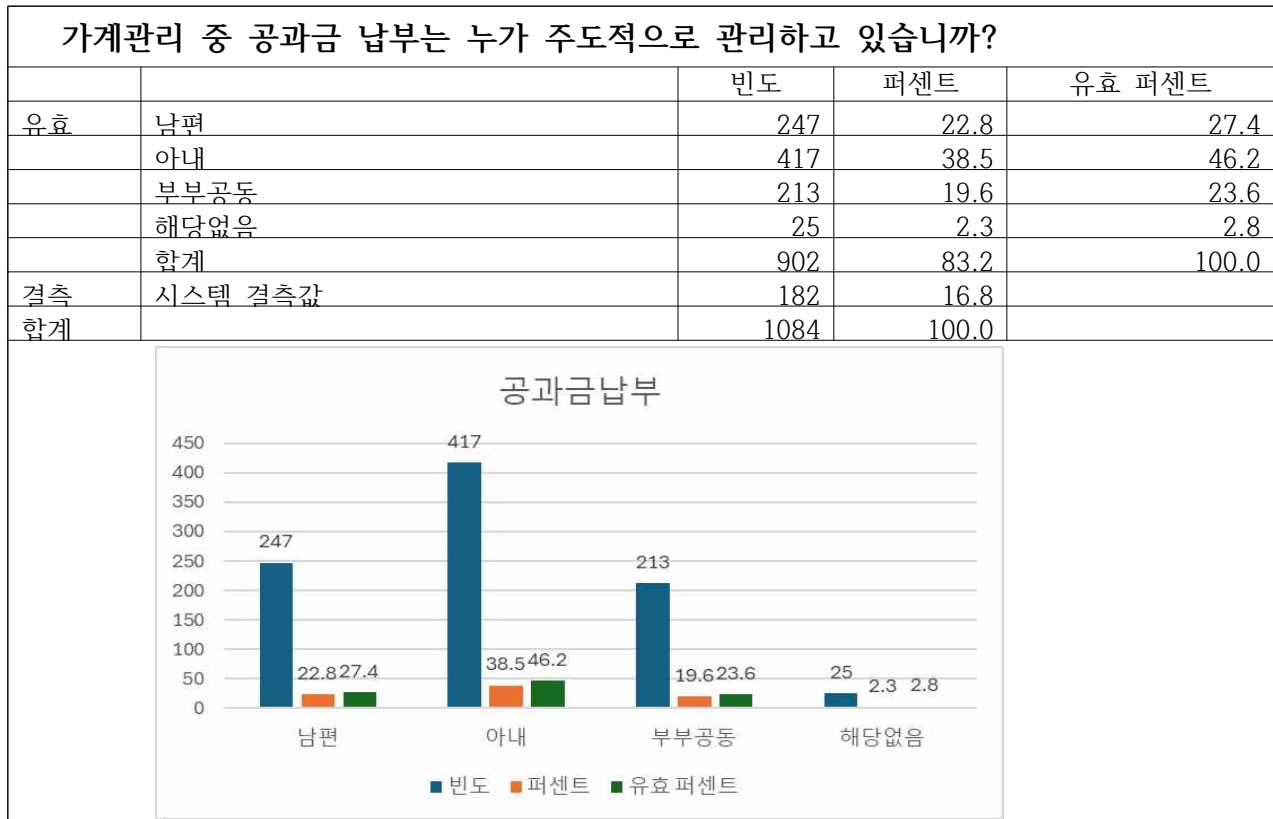
소득에 따른 평균값보다 차이를 크게 나타내는 부분은 거의 없고 생활비에서 3백만 원대가 남편이 평균보다 5% 이상 낮은 것, 저축에서 2백만 원 미만의 남편 3백만 원대의 아내가 평균보다 높고, 친족관계는 5% 이상의 차이가 없고, 금융과 부동산에서 남편이 4백만 원대의 남편이 평균보다 5%를 넘은 것, 집 명의에 대해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의 남편이 평균보다 5% 이상 벗어났다. 상가에 대한 명의를 5백만 원대에서 남편과 4백만 원대의 부부 공동이 5%를 넘는 차이가 있다. 남녀 구분 채용과 직장 상사, 동일 노동에 대해 4백만 원대의 부정적인 답변이 평균보다 10% 이상 높게 답변했다. 돌봄에 대해서는 200만 원대 소득층이 비용 100만 원 이하라는 답변이 평균보다 6.4% 높다.

특성별 소득결과

- ☐ (성별 평균소득) 남자(414만원)가 여자(271만원)의 1.5배이며, 전년 대비 남자는 6.5%, 여자는 5.7% 각각 증가
- ☐ (연령대별 평균소득) 40대(438만원), 50대(415만원), 30대(379만원) 순이며, 전년 대비 60세 이상(8.1%), 50대(7.0%), 20대(6.4%) 순으로 증가
- ☐ (근속기간별 평균소득)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은 높고, 전년 대비 1년 미만(10.0%), 1~2년 미만(6.1%), 2~3년 미만(6.0%)순으로 증가

22년 임금근자 소득결과(2024, 통계청)

□ 성평등에 대한 조사



공과금 납부는 남편 27.4%, 아내 46.0%, 공동관리 23.6%로 나타났고, 공과금은 아내가 관리가 가장 많고 공동관리와 남편 관리가 비슷한 수준이다.

권역 * 공과금 납부 교차

공과금 관리를 남편이 가장 높은 비율은 32.3%를 나타낸 충남 세종이었고, 남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였다. 아내의 비율 가장 높은 곳은 경기 55.8%와 제주 51.8%로 50%를 넘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 강원지역으로 37.4%였다.

지자체 * 공과금 납부 교차

부부가 생활 또는 자산관리를 주도하는지를 묻는 말에 모든 지역에 아내가 더 주도적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공동으로 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 것은 친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이었다. 공과금 납부의 주도권에 대한 답변이 남편의 평균보다 27.4%보다 5% 이상 많은 지역은 제천 37.5%, 세종 35.9%, 울산 33.9%였고 아내가 주도권이 평균보다 46.2%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군포 61.8%, 부산이 59.3%, 제주 51.8%이다. 부부 공동관리가 평균보다 가장 높은 지역은 원주로 38.8%, 제주가 32.1%이다.

성별 * 공과금 납부 교차

공과금에 대한 운영을 여성은 50.5%가 아내라고 답변해서 남편이라는 응답의 2배이고, 남성은 남편이라는 답변이 37.1%, 아내라는 답변 36.3%로 비슷하다. 부부 공동관리한다는 답변은 여성 남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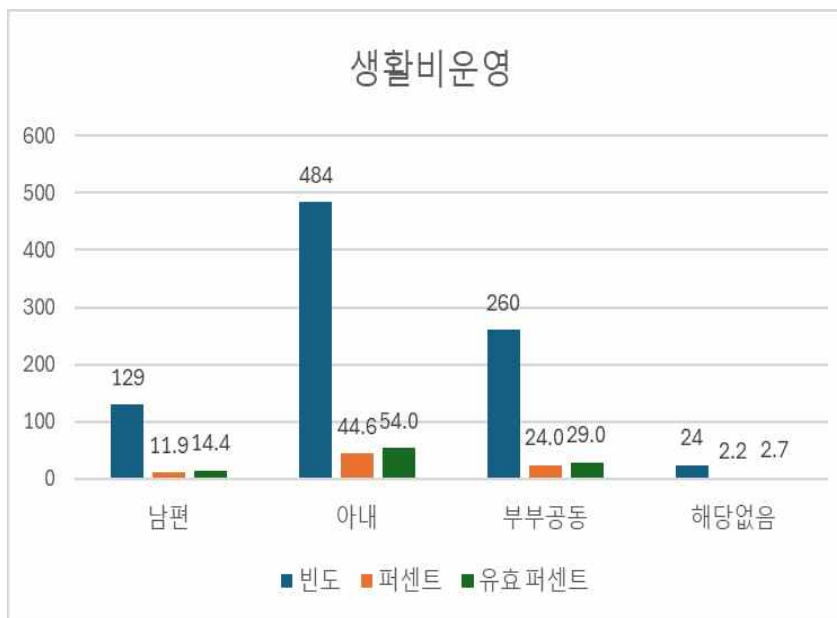
최종 학력 * 공과금 납부 교차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공과금, 생활비, 저축, 친족관계에서 아내가 주도적이라는 답변이 평균보다 10%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가게 관리 중 생활비 운영은 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남편	129	11.9	14.4
	아내	484	44.6	54.0
	부부공동	260	24.0	29.0
	해당없음	24	2.2	2.7
	합계	897	82.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7	17.3	
합계		1084	100.0	



생활비 운영은 아내가 50% 이상이고 공동관리 29%이고 남편은 14.4%로 응답했다. 살림 운영을 아내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역 * 생활비 운영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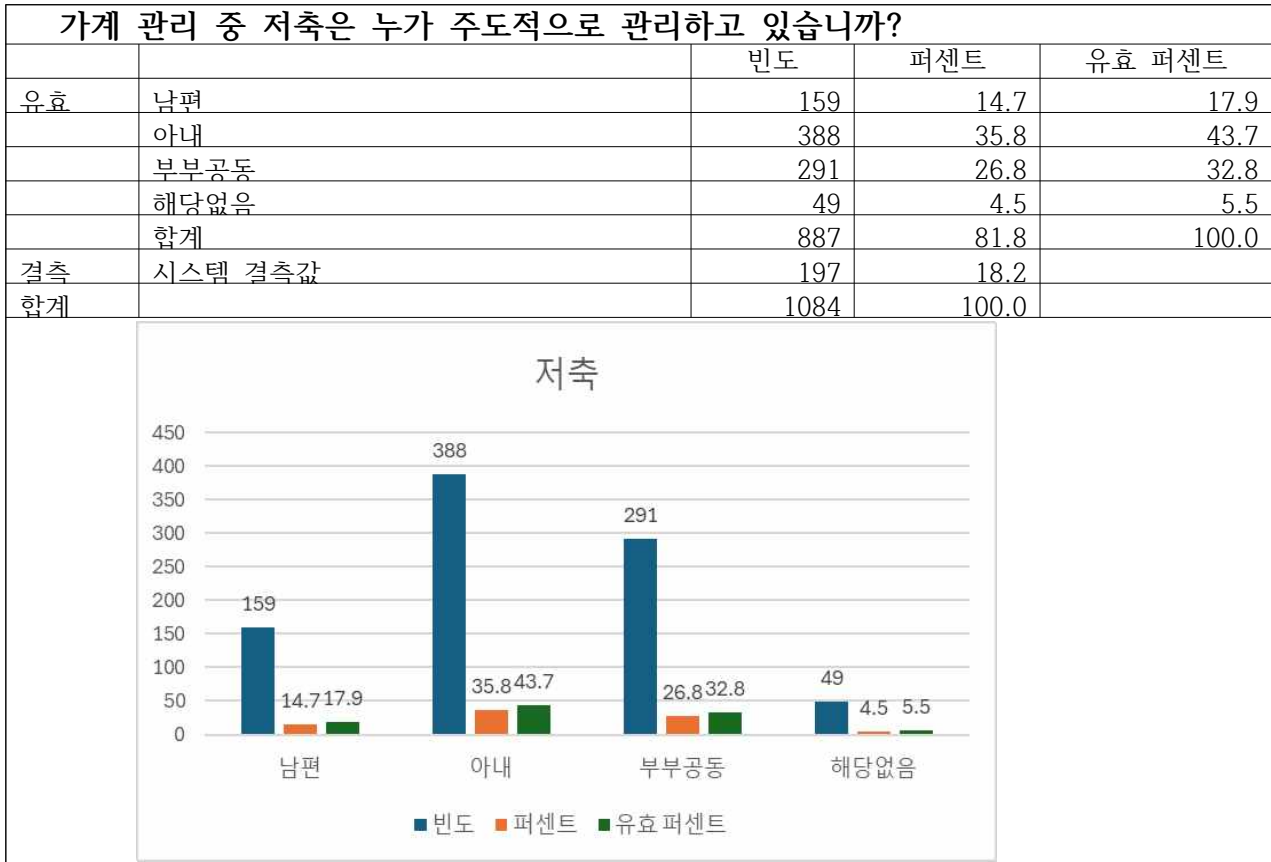
생활비 운영을 남편이 주도적으로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충남 세종권역으로 17.6%이고, 아내가 주도적인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63.9%였다. 평균에서 5%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권역은 경기였다.

지자체 * 생활비 운영 교차

생활비 운영은 아내가 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아내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곳은 군포가 65.8%, 수원 안양 평택 62.5%, 부산이 59.8%이다. 남편이 주로 운영한다는 답변의 지역적 차이는 평균보다 5%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없었고,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17.8%였다. 공동관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원주로 40.3%, 창원이 36.7%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21.3%의 수원 안양 평택이었다.

성별 * 생활비 운영 7 교차

생활비 운영에 있어서는 남녀가 아내라고 답변이 50%를 넘고 있고, 공동관리의 비율은 29.5%와 27.7%로 비슷하다. 생활비에 대한 관리는 아내 또는 공동관리를 82.9%이고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는 14.4%로 낮았다.



저축관리는 아내 43.7%, 공동관리 32.8%, 남편 관리 17.9%이다. 이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권역 * 저축 교차

저축에 대한 주도권이 가장 낮은 권역은 영남이고 15.2%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46.3%로 영남지역이 있으나 평균에서 5%를 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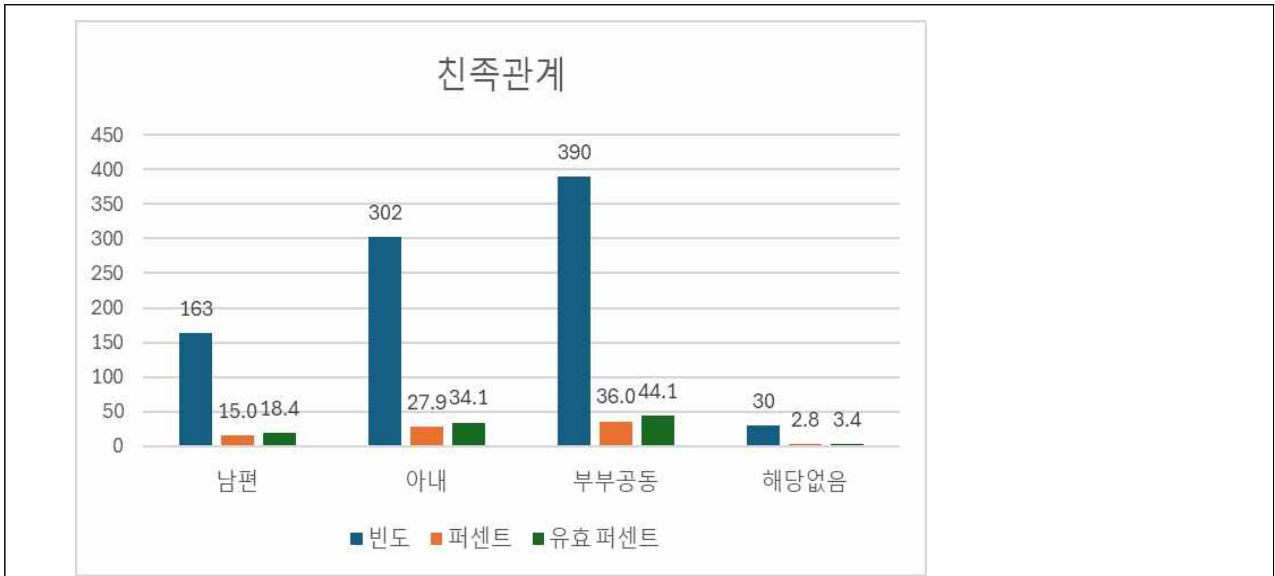
지자체 * 저축 교차

저축에 대한 관리자는 아내가 가장 높았다. 남편의 관리가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곳은 세종 25.3%, 5% 이상 낮은 곳은 부산으로 12.6%이다. 아내 관리가 평균값보다 높은 지역은 군포 52.6%, 부산 52.3%이다. 공동관리가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곳은 창원 43.0%, 원주 41.8%, 제주가 37.5%이고 5% 이상 낮은 지역은 없었다.

성별 * 저축 교차

저축관리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아내가 관리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공동관리한다는 비율을 남녀 비슷하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남편	163	15.0	18.4
	아내	302	27.9	34.1
	부부공동	390	36.0	44.1
	해당없음	30	2.8	3.4
	합계	885	81.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9	18.4	
합계		1084	100.0	



부부 공동 44.1%, 아내 34.1%, 남편 18.4% 순이다. 남편보다 아내 관리가 2배 정도 차이가 있다.

권역 * 친족관계 교차

친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에 남편이 높은 지역은 충남 세종 21.9%였고, 아내가 가장 높은 지역은 39.9%의 영남이었으나 평균에서 5% 벗어나지는 않았다.

지자체 * 친족관계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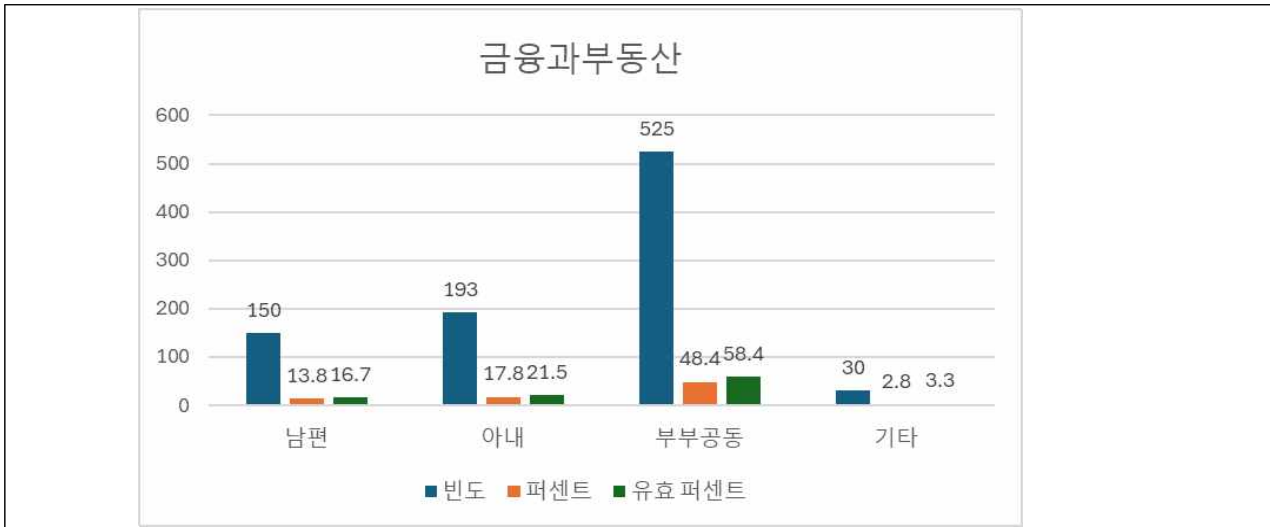
친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은 공동관리가 가장 가장 높았다. 답변 중 남편이 평균값 18.4%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아산 당진으로 23.6%, 5% 이상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11.8%였다. 아내의 주도권이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47.3%, 군포가 42.1%이다. 공동 결정을 평균값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은 원주로 56.7%, 세종이 52.3%였고, 평균보다 5% 이상 낮은 지역은 군포 36.8%, 부산 36.4%이다.

성별 * 친족관계 교차

친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여성은 아내 37.5% 남편 15.0%로 아내가 높지만, 남성은 26.6% 정도 비슷하게 답하고 있다. 부부 공동관리는 남녀 평균 44% 정도로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다. 여성은 여성이 주도적이라는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의 금융 및 부동산 등은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결혼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남편	150	13.8	16.7
	아내	193	17.8	21.5
	부부공동	525	48.4	58.4
	기타	30	2.8	3.3
	오류	1	0.1	0.1
	합계	899	82.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85	17.1	
합계		1084	100.0	



부동산과 금융 등 자산관리는 공동 58.4%, 아내 21.5%, 남편 16.7% 순이다. 저축관리는 아내 43.7%, 공동관리 32.8%, 남편 관리 17.9%와 비교하면 자산관리에는 공동관리가 높은 편이고 남편은 저축과 비슷한 수준이다.

권역 * 금융과 부동산 교차

금융과 부동산 관리에 남편이 주도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지역은 20.5%로 충남 세종이고, 아내가 가장 높은 권역은 32.9%인 경기였고, 부부 공동관 리가 가장 높은 권역도 49.7%인 경기였다. 경기권역은 평균을 5%를 넘었다.

지자체 * 금융과 부동산 교차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부부 공동이라는 답변이 58.4%로 가장 높았고 아내, 남편 순이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포로 64.5%로 5%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안산 평택으로 38.1%로 인접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수원 안산 평택은 아내 관리가 평균값의 2배 이상인 46.4%이고 남편 관리는 12.4%로 이지만 평균값의 5%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금융과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는 수원 안산 평택 지역이 특이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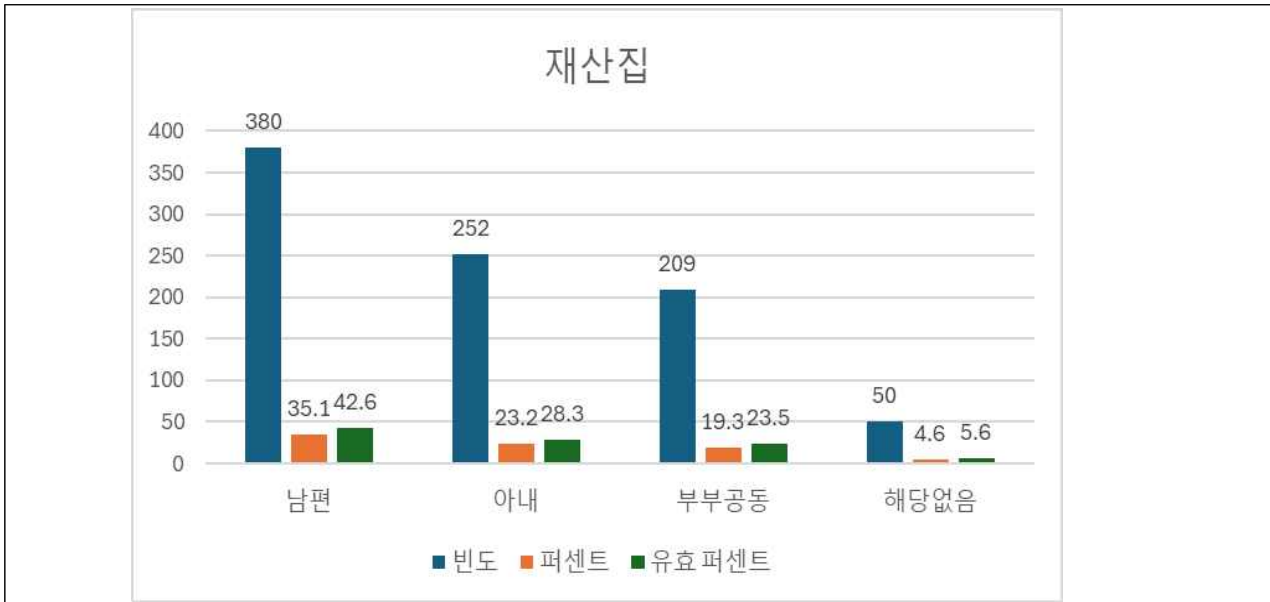
성별 * 금융과 부동산 교차

금융과 부동산 관리는 부부 공동관리가 평균 58.4%이고 여성은 아내가 결정이 조금 높고 남성은 남편 결정이 조금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설문결과 금융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이 단독 결정보다 2배 이상 높다.

최종 학력 * 금융과 부동산 교차

금융과 부동산에서는 학력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다.

부부의 재산 중 집의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남편	380	35.1	42.6
	아내	252	23.2	28.3
	부부공동	209	19.3	23.5
	해당없음	50	4.6	5.6
	합계	891	82.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3	17.8	
합계		1084	100.0	



재산 중 집의 명의는 남편 42.6%, 아내 28.3%, 부부 공동 23.5% 순이다.

권역 * 재산 집 교차

재산의 명의가 아내보다는 남편이라는 답변이 평균 14.3% 높았고, 남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권역은 충북 강원이었고, 아내가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세종이고, 공동명의로 높은 지역은 제주였다. 평균보다 5% 이상 차이가 있는 권역은 없었다.

지자체 * 재산 집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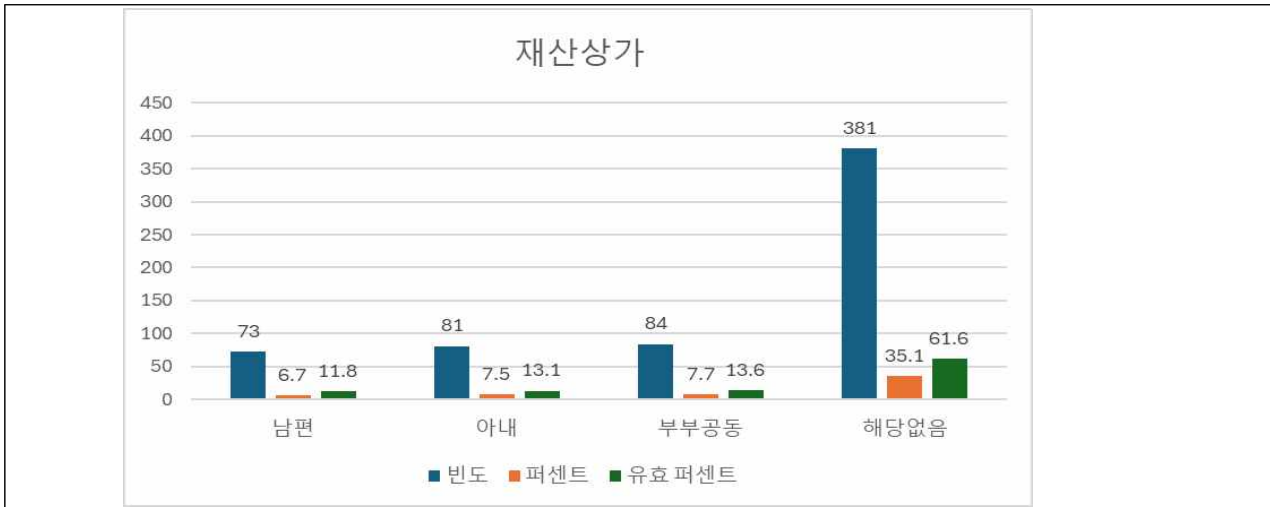
재산 중 집의 명의는 남편, 아내, 공동의 순이었고, 남편의 비율이 아내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남편 소유의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울산 51.8%, 제천 48.0%이고, 평균값보다 5% 이상 낮은 곳은 부산 34.5%와 군포 36.8%였다. 아내 소유의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아산 당진지역으로 33.3%이고, 평균보다 5% 이상 낮은 곳은 울산 20.5%이다. 울산은 아내보다 남편 명의인 비율이 2.5배 높다. 공동소유의 평균값 23.5%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원주 32.8%와 부산 31.0%이고 5%보다 낮은 지역은 수원 안산 평택 16.0%와 아산 당진 17.1%이다.

성별 * 재산 집 교차

집에 대한 소유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

부부의 재산 중 상가의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남편	73	6.7	11.8
	아내	81	7.5	13.1
	부부 공동	84	7.7	13.6
	해당 없음	381	35.1	61.6
	한계	619	5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65	42.9	
한계		1084	100.0	



재산 중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명의는 부부 공동 13.6%, 아내 13.1%, 남편 11.8%로 나타났다. 집의 명의가 남편이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상가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권역 * 재산 상가 교차

상가를 보유하였을 때 명의가 남편이라는 답변이 가장 낮고, 아내가 가장 높은 권역은 제주였다. 상가에 대한 공동명의로 가장 높은 권역은 충북 강원이었으며 51.4%를 평균의 세 배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지자체 * 재산 상가 교차

상가에 대한 소유는 공동, 아내, 남편의 순이고 차이는 것이 없다. 부부 공동소유에서 특이점은 원주가 87%로 답변했고 인접 지역인 제천이 15.1%로 답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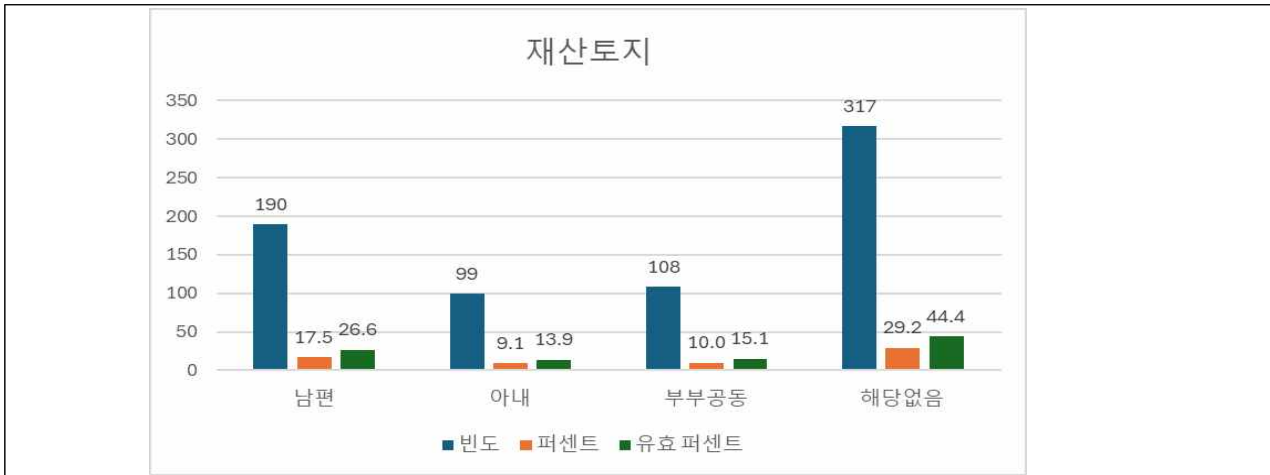
성별 * 재산 상가 교차

상가에 대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

연령대 * 재산 상가 교차

30대는 부부 공동이 급격히 높아져 83.3%로 조사되었다. 다른 연령대는 비슷하다.

부부의 재산 중 토지의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남편	190	17.5	26.6
	아내	99	9.1	13.9
	부부 공동	108	10.0	15.1
	해당 없음	317	29.2	44.4
	합계	714	65.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70	34.1	
합계		1084	100.0	



토지는 남편 26.6%, 공동 15.1%, 아내 13.9% 순이다. 상가에 비해 남편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권역 * 재산 토지 교차

재산 중 토지의 명의는 남편이 아내보다 많았고, 공동명의로 많은 곳은 충북 강원이었다. 충북 강원은 부부 공동명의로 많고 남편 명의가 평균보다 13.6%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 재산 토지 교차

토지에 대한 명의로는 집에 대한 답변과 비슷하다. 다만 평균값보다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원주와 창원이다. 원주는 부부 공동명의로에 대한 답변이 상가와 비슷하게 67.3%이다. 원주는 집을 제외한 부동산의 명의로는 공동명의로가 상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창원의 경우 집보다 토지의 남편 명의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 * 재산 토지 교차

토지에 대한 답변은 집과 비슷하다. 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아내의 소유가 많다는 답변이 8.3% 높다.

연령대 * 재산 토지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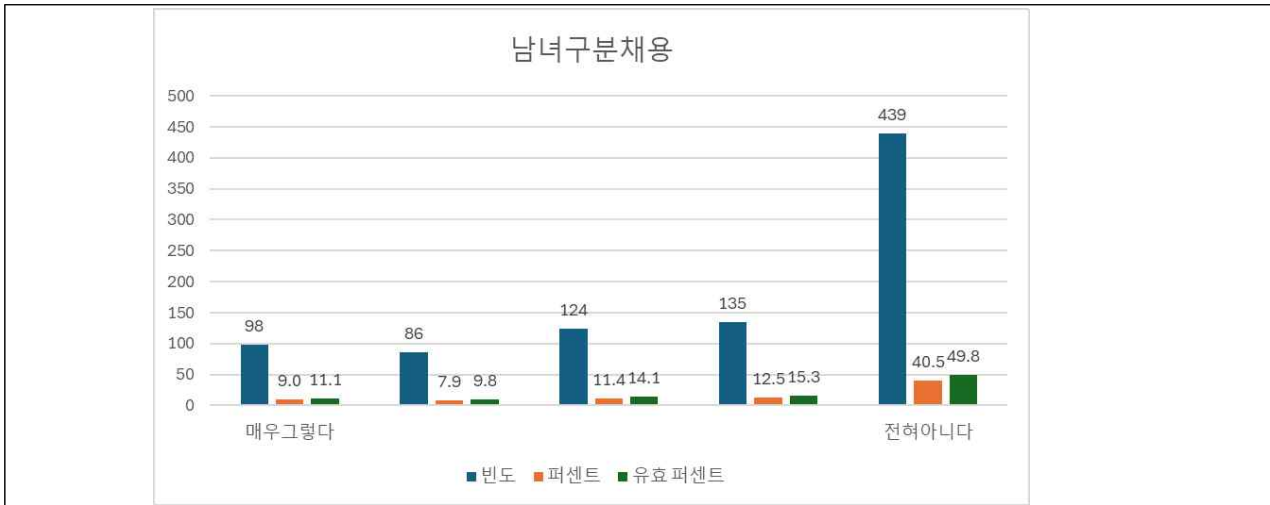
30대는 부부 공동이 급격히 높아져 78.3%로 조사되었다. 다른 연령대는 비슷하다.

최종 학력 * 재산 토지 교차

특이 사항 없음

내가 일하고 있는 곳(경제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남녀의 업무(일)를 구분해서 채용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그렇다	98	9.0	11.1
		86	7.9	9.8
		124	11.4	14.1
		135	12.5	15.3
	전혀아니다	439	40.5	49.8
		882	81.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2	18.6	
합계		1084	100.0	



업무에 대한 남녀 구분을 묻는 질문으로 구분이 없다는 답변이 66.2%이고, 구분이 있다는 답변이 20.9%이다. 많은 일터에서 구분이 없어지고 있음을 나타나 낸다. 다만 답변자의 대학교 졸업 이상이 82.9%라는 것으로 볼 때 학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권역 * 남녀 구분 채용 교차

채용에 남녀 구분이 가장 적은 권역은 경기권역으로 없다는 답변이 평균보다 11.6% 높았고, 가장 낮은 권역은 충북 강원권역으로 없다는 답변이 평균보다 5.9% 낮게 나타났다. 이외 권역은 평균의 5%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 * 남녀 구분 채용 교차

채용에 남녀의 업무를 구분에 대한 답변 중 구분한다는 답변이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제천 33.3%와 울산 31.0%이고 평균값보다 5% 이상 낮은 곳은 수원 안성 평택 12.4%와 원주 14.3%이다.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의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군포, 수원 안양 평택, 원주, 세종이고, 5% 이상 낮은 곳은 제천 44.0%와 울산 54.0%이다. 남녀 구분 채용으로 정도는 울산과 제천이 큰 차이 보이면서 성평등과 거리를 두고 있다.

성별 * 남녀 구분 채용 교차

남녀 구분 채용에 대한 답변은 남성이 여정보다 차별이 더 있다고 답변하고 있고, 여성은 차별이 없다는 답변이 남성보다 9.1% 높다.

연령대 * 남녀 구분 채용 교차

나이가 젊어질수록 남녀 구분 채용 적다고 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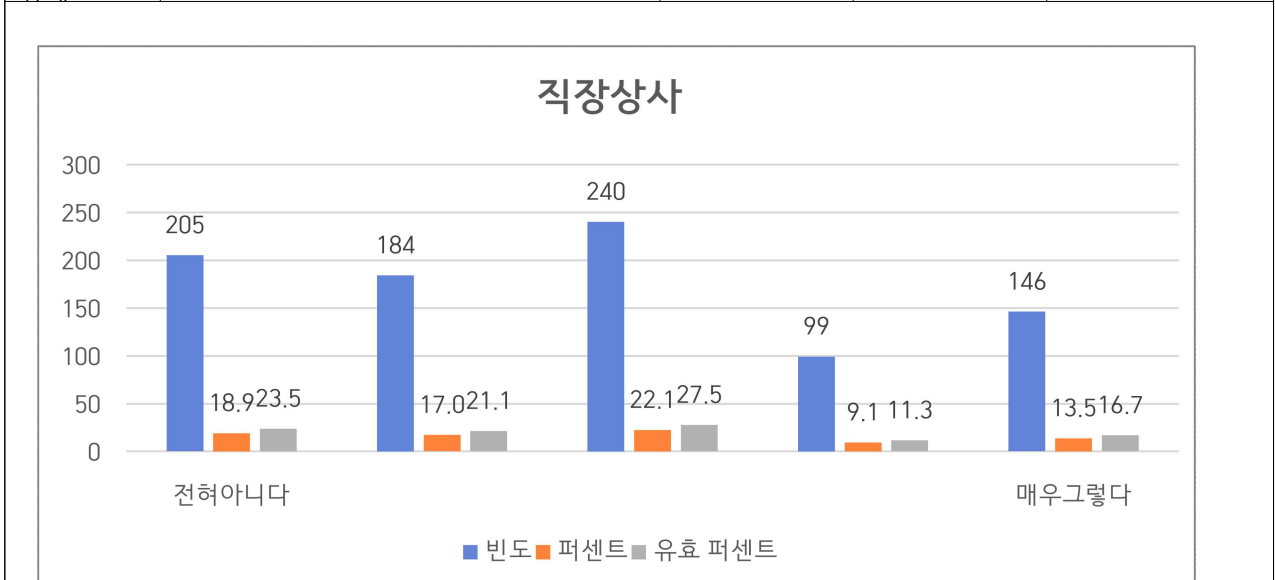
최종 학력 * 남녀 구분 채용 교차

남녀 구분 채용이 없다는 답변은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에 대한 차별이 적다는 것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임원직/고위직 상사의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아니다	205	18.9	23.5
		184	17.0	21.1
		240	22.1	27.5

		99	9.1	11.3
	매우 그렇다	146	13.5	16.7
	합계	874	80.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0	19.4	
합계		1084	100.0	



임원이나 고위직에 여성의 비중을 질문이다. 아니라는 답변이 44.5%이고, 그렇다고 답변이 28.0%, 중립적인 답변이 27.5%이다. 일터에서의 임원이나 고위직에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답변자의 대학교 졸업 이상이 82.9%라는 것을 고려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역 * 직장 상사 교차

직장 상사 중 남녀의 비율이 차이가 크게 난다는 답변하고 있는 권역은 제주였다.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26.3% 정도였다. 직장 상사의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는 답변이 평균보다 가장 낮은 권역은 영남이었고, 평균보다 7.5% 차이를 나타냈다. 다른 권역은 평균인 44.5%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자체 * 직장 상사 교차

직장 상사의 비율이 비슷한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는 답변이 26.7% 비슷하지 않다는 답변이 45.9%로 상사에 남녀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중 부정적인 답변이 큰 곳은 울산 58.0%이고,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40.2%이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세종과 울산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성별 * 직장 상사 교차

직장 상사의 성비가 비슷하지 않다는 답변을 남성은 53.1, 여성은 42.3%로 차이가 크고 비슷하다는 답변의 차이는 16% 정도로 답변하고 있다. 남성이 직장 상사의 성비 불균형을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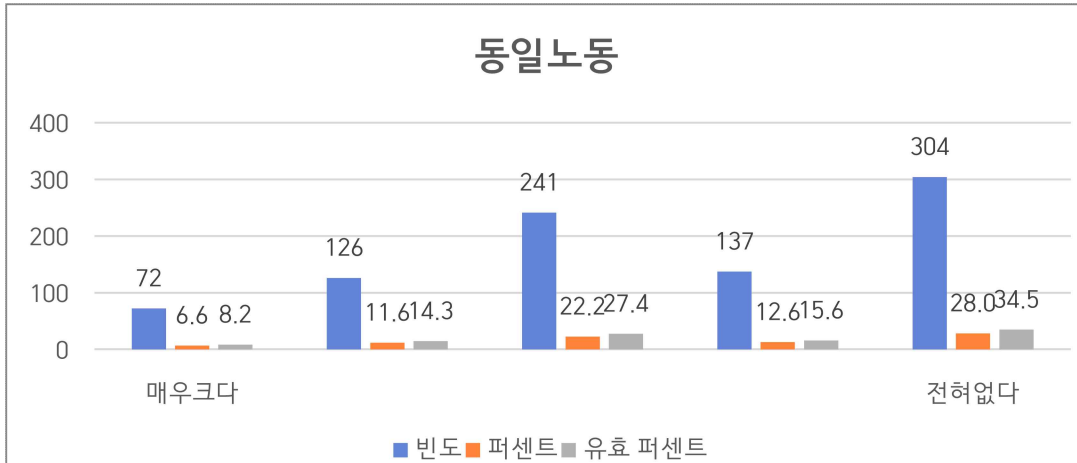
최종 학력 * 직장 상사 교차

직장 상사의 성비가 비슷하다는 답변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러하다고 답변하고 있고, 학력이 낮을수록 비슷하지 않다는 답변이 높아진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에 대해서 남녀 차이가 어느 정도 인가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	----	-----	--------

유효	매우 크다	72	6.6	8.2
		126	11.6	14.3
		241	22.2	27.4
		137	12.6	15.6
	전혀 없다	304	28.0	34.5
	합계	880	81.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4	18.8	
합계		1084	100.0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 차별이 없다는 답변이 51.1%, 중립적인 답변이 27.4%이고,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 22.5%이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차별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 졸업 이상이 82.9%가 답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권역 * 동일 노동 교차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이 크다고 답변이 가장 많은 권역은 제주였고 82.5%였다. 이는 남녀의 차이가 사람 대부분이 느낀다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이외의 권역은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50% 안팎이었고, 가장 높은 권역은 경기로 61.3%였다.

지자체 * 동일 노동 교차(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있다.)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가 크다는 답변이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곳은 제주 73.7%와 울산 24.5%이고 낮은 곳은 수원 안양 평택 12.6%, 세종 12.6%이다. 격차가 없다는 답변이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군포 69.2%, 세종 65.5%, 부산 61.8%이고 낮은 지역은 제주 8.8%, 제천 38.8%, 울산 45.9%, 창원 43.9%이다. 임금 격차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 동일 노동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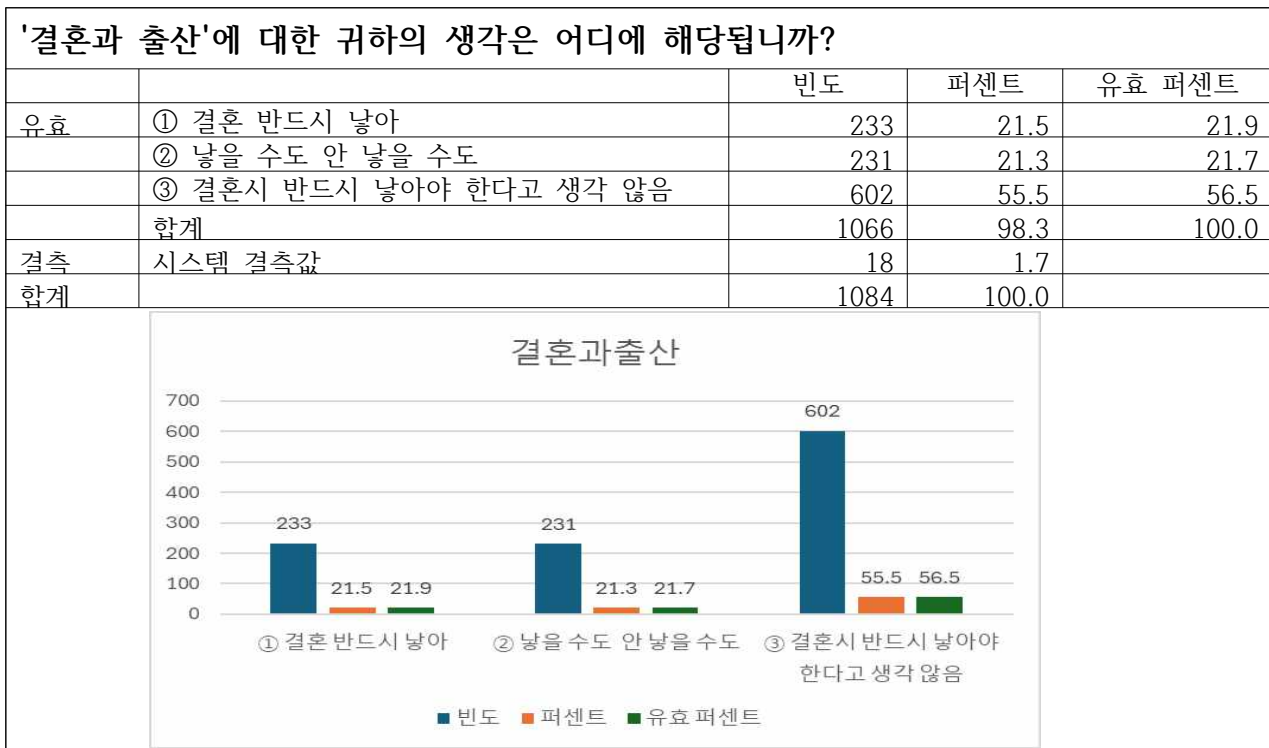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이가 있고 남성은 27.9%, 여성은 11.9%로 인식의 차이가 크고 없다는 답변은 여성 37.8과 남성 33.1%로 비슷하게 응답하고 있다. 임금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연령대 * 동일 노동 교차

나이가 젊을수록 동일 노동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답변이 높아지고, 50대가 차별을 없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최종 학력 * 동일 노동 교차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고졸 51.8%, 대졸 51.9%, 대학원 이상이 67.0%이다.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6.5%이고, 결혼하면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 있다는 답변이 21.7%,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답변이 21.9%이다.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답변을 제외하면 78.2%는 결혼이 반드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결혼을 분리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출산을 감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역 * 결혼과 출산 교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응답에서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는 경우는 제주였고, 결혼하면 반드시 출산해야 한다는 답변이 12.3%였다.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87.7%였다.

지자체 * 결혼과 출산 교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78.1%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고, 지역 차이도 크다. 결혼하면 출산해야 한다는 답변이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제천, 부산, 울산이고, 낮은 지역은 원주 10.0%, 창원 12.9%, 제주 12.3%이다.

성별 * 결혼과 출산 교차

결혼과 출산에서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은 17.7 남성은 31.4%로 인식 차이가 크고 특히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다변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는 큼을 알 수 있다.

연령대 * 결혼과 출산 교차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나이가 젊어질수록 출산과 결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답변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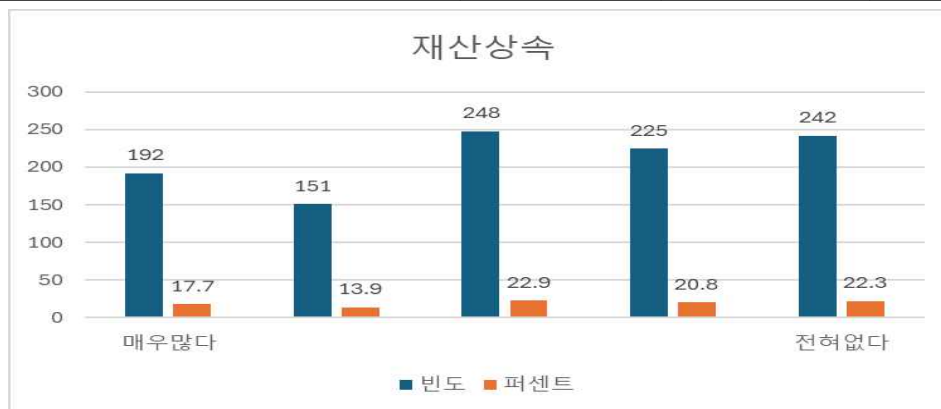
최종 학력 * 결혼과 출산 교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은 고졸 이하에서 61.8%, 대졸 83.3% 대학원 이상 76.5%로 학력에 대한 차이

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 이상이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력에서 대학원 이상보다 대학 졸업이 높게 나타난 이유일 것이다.

내 주변에서 재산 상속 문제에 있어 남녀(아들/딸)가 다르게 대우받은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많다	192	17.7	18.1
		151	13.9	14.3
		248	22.9	23.4
		225	20.8	21.3
	전혀없다	242	22.3	22.9
	합계	1058	97.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6	2.4	
합계		1084	100.0	



재산 상속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지를 질문이다. 없다는 답변이 43.1%, 많다는 답변이 31.6%이고, 중립적인 답변이 22.9%이다. 재산 상속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있으나 많이 존재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권역 * 재산 상속 교차

재산 상속에 대한 차별을 많이 들었다는 답변은 제주 권역이 도드라지게 나타났고, 84.9%였다. 차별이 없다는 답변이 0%였다. 이는 상속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제사 자에 대한 상속을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확인 결과 서귀포에 가까울수록 제사 상속의 문화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다음으로 차별이 많다고 응답은 경기도 44.2%가 답변했다. 차별이 없다는 답변이 높은 지역은 충남 세종으로 58.1%가 차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 * 재산 상속 교차

재산 상속에 대한 차별을 들었다는 응답에 지역적 차이는 제주가 극단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수원 안양 평택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산 당진 63.6%였고,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세종, 울산, 부산이었다.

성별 * 재산 상속 교차

재산 상속에 대한 차별을 많이 들었다는 응답이 남성 36.6, 여성이 22.3% 이어서 남성이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없다는 답변은 여성이 55.1% 남성이 38.1%를 차별을 여성이 낮게 느끼고 있다. 이는 상속에 대해서 차별을 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차별하는 것이고, 여성은 상속에 대해서 차별을 당연히 받아들임으로써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연령대 * 재산 상속 교차

상속에 대한 차별이 들었다는 응답은 연령이 젊어질수록 높아진다. 이는 상속의 차별에 대해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젊어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 학력 * 재산 상속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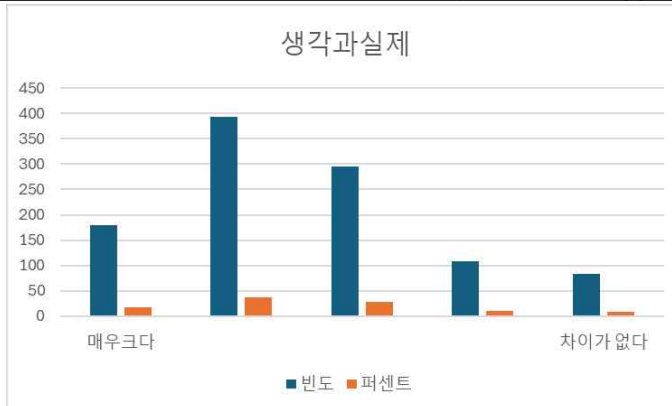
학력의 차이가 크지 않음

월 소득 * 재산 상속 교차

- 재산 상속에 월소득 3백만 원대가 부정 답변이 평균보다 9% 정도 높았고,

성평등한 생각과 실제 생활에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크다	180	16.6	16.9
		393	36.3	37.0
		296	27.3	27.9
		109	10.1	10.3
	차이가 없다	84	7.7	7.9
	합계	1062	98.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2.0	
합계		1084	100.0	



성평등에 대해서 생각과 실제 현상의 차이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질문이다. 차이가 크다는 답변이 53.9%, 없다는 18.8%이고, 중립적인 답변이 27.9%이다. 인식과 실제 사이의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역 * 생각과 실제 교차

성평등에 관한 생각과 실제의 차이가 크다는 답변을 가장 높게 한 지역은 제주였고, 83.6%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 강원으로 39.8%였다. 제주 권역은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0%이다.

지자체 * 생각과 실제 교차

성평등에 관한 생각과 실제의 차이에 대한 응답으로 크다는 답변의 평균은 54.0%이고 5% 이상 크다고 답변한 지역은 제주, 창원, 아산 당진이다.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평균보다 5% 높게 답변한 지역은 제천, 군포, 원주였다. 이는 성평등의 정도보다는 생각이 실천되는 정도이며 성평등에 관한 생각(인식)이 낮은 지역에서 실제 행동도 낮으면 차이가 없게 나타날 수 있다.

성별 * 생각과 실제 교차

성평등에 관한 생각과 실제의 차이가 크다는 응답에 여성이 60.1%이고, 남성이 39.6으로 여성이 문제 의식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최종 학력 * 생각과 실제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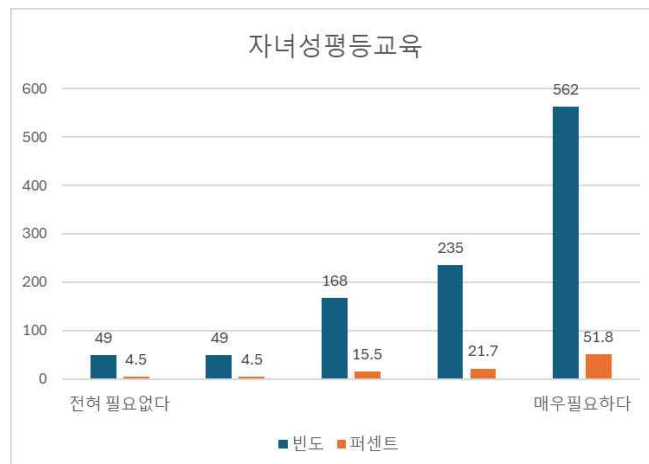
생각과 실제의 차이가 크다는 답변이 고졸에서 46.9%로 평균값보다 8% 이상 차이가 난다.

월 소득 * 생각과 실제 교차

- 성평등에 관한 생각과 실제에 대해 부정 답변이 2백만 원 미만이 평균보다 12.7% 높았다.

자녀 세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과 실천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필요없다	49	4.5	4.6
		49	4.5	4.6
		168	15.5	15.8
		235	21.7	22.1
	매우필요하다	562	51.8	52.9
	합계	1063	98.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	1.9	
합계		1084	100.0	



필요하다는 답변이 73.5%, 없다는 답변이 9.0%이고 중립적인 답변이 15.5%이다.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다. 이는 성평등의 달성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역 * 자녀 성평등 교육 교차

자녀의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한 권역은 제주 91.8%였고 필요 없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답변한 권역은 12.6%의 영남권역이었다.

지자체 * 자녀 성평등 교육 교차

자녀에 대한 성평등 교육의 필요를 75.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16.9%이다. 울산이 성평등에 대한 지표가 불평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응답하고 있는데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 낮게 응답하는 것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

성별 * 자녀 성평등 교육 교차

차세대의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은 여성 78.8%, 남성 66.1%로 남녀 모두 높게 응답하지만, 여성이

12.7% 더 높게 응답하며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대 * 자녀 성평등 교육 교차

나이가 젊어질수록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답변하고 있음

최종 학력 * 자녀 성평등 교육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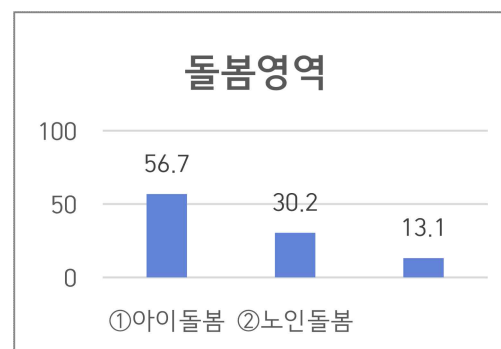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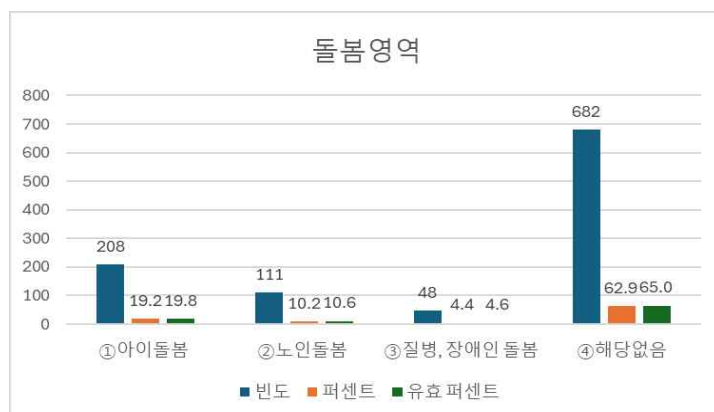
자녀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학력 차이는 고졸에서 가장 낮은 56.1%이었고, 고졸은 필요 없다는 답변을 평균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력에 따라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이 차이가 큼을 보여준다.

□ 돌봄에 대한 조사

돌봄의 영역 독립변수로 장소, 시간, 비용 교차분석 필요

현재, 가족 안에서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 영역이 있는지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참여 퍼센트
유효	①아이 돌봄	208	19.2	19.8	56.7
	②노인 돌봄	111	10.2	10.6	30.2
	③질병, 장애인 돌봄	48	4.4	4.6	13.1
	④해당없음	682	62.9	65.0	
	오류	1	0.1	0.1	
	합계	1050	96.9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4	3.1		
합계		1084	100.0		



돌봄 영역은 아이 돌봄 56.7%, 노인 돌봄 30.2%, 질병과 장애인 돌봄 13.1이다. 결측은 중복 선택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권역 * 돌봄 영역 교차표

돌봄의 영역은 모든 권역에서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질병(장애인) 돌봄의 순서였다. 아이 돌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영남지역이었다. 질병(장애인) 돌봄을 낮게 답변한 권역은 제주였다.

지자체 * 돌봄 영역 교차표

돌봄의 영역은 아이, 노인, 질병과 장애인의 순이었다. 아이 돌봄이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은

울산, 원주, 군포, 창원, 노인 돌봄이 평균값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이 수원 안양 평택, 아산 당진, 제천이다. 중복 선택 값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지역 특성을 볼 수 있었다.

성별 * 돌봄 영역 교차표

돌봄의 영역에 대해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고 아이 돌봄을 여성이 5.3% 높게 답변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아이를 돌봄이 대상으로 더 생각하고 있거나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대 * 돌봄 영역 교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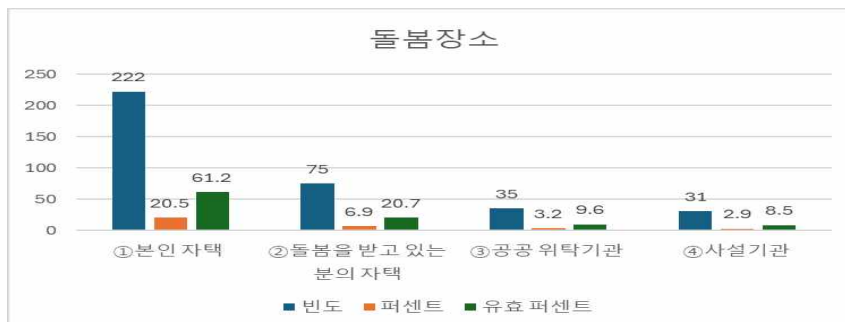
아이 돌봄이 가장 많이 나타난 세대는 40이고 평균값의 2배였다.

최종 학력 * 돌봄 영역 교차표

돌봄의 영역에서 학력 차이가 나타나는데 고졸과 대학원 이상에서 아이 돌봄이 대학 졸업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대학원 이상에서 노인 돌봄이 평균보다 10% 높았다.

돌봄의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현재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고 응답한 분들만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①본인 자택	222	20.5	61.2
	②돌봄을 받는 분의 자택	75	6.9	20.7
	③공공 위탁기관	35	3.2	9.6
	④사설기관	31	2.9	8.5
	합계	363	33.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21	66.5	
합계		1084	100.0	



돌봄이 일어나는 장소는 본인의 자택 61.2%, 돌봄 받는 분의 자택 20.7%, 공공기관 9.6%, 사설 기관 8.5%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 * 돌봄 장소 교차표

돌봄의 장소는 본인 자택의 비율이 61.2%이고, 돌봄을 받는 사람의 집, 공공기관 사설 기관의 순서였다. 사설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였고 15.4%로 평균의 약 1.8배 정도이다.

지자체 * 돌봄 장소 교차표

돌봄이 일어나는 곳은 본인의 집인 경우가 61.2%였고, 원주, 창원, 제주가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지역이었고, 낮은 지역은 제천으로 43.3%였다. 제천은 돌봄을 받는 분의 집이라는 답변이 크게 나타났다.

수원 안양 평택의 경우 사설 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위탁기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2.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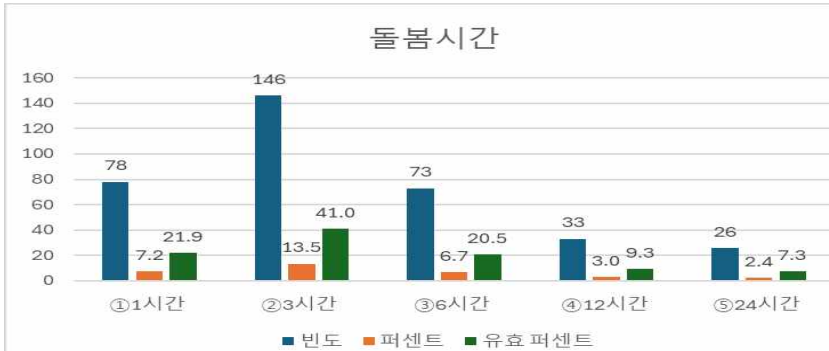
성별 * 돌봄 장소 교차표
돌봄의 장소에 대한 차이는 없다.

연령대 * 돌봄 장소 교차표
돌봄의 장소로 자택을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30대 82.1%와 40대 87.7%이다. 돌봄을 받고 있는 집이 높게 나타난 나이는 50대와 60대였다.

최종 학력 * 돌봄 장소 교차표
돌봄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답변이 높은 학력은 대학 졸업이고, 돌봄 받는 사람의 집은 고졸이고 공동기관과 사설 기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현재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어느 정도인가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①1시간	78	7.2	21.9
	②3시간	146	13.5	41.0
	③6시간	73	6.7	20.5
	④12시간	33	3.0	9.3
	⑤24시간	26	2.4	7.3
	합계	356	32.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28	67.2	
합계		1084	100.0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41.0%, 1시간 21.9%, 6시간 20.5%, 12시간 9.3%, 24시간 7.3% 순이다.

권역 * 돌봄 시간 교차표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3시간 가장 많다고 하였고, 제주도는 24시간 돌봄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충북 강원권역에서 24시간 돌봄으로 답변이 12시간 돌봄보다 월등히 많게 답변하였다.

지자체 * 돌봄 시간 교차표
돌봄이 시간은 3시간이 41.0%, 1시간 21.9%, 6시간 20.5%로 6시간 이내의 돌봄이 83.4%였다. 24시간 돌봄이 7.3%였고 아산 당진지역인 제일 높았고 제주는 응답이 없었다.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 곳은 제주가 1시간 40.9%로 나타난 것이다.

성별 * 돌봄 시간 교차표
돌봄 시간은 1시간 돌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12시간 돌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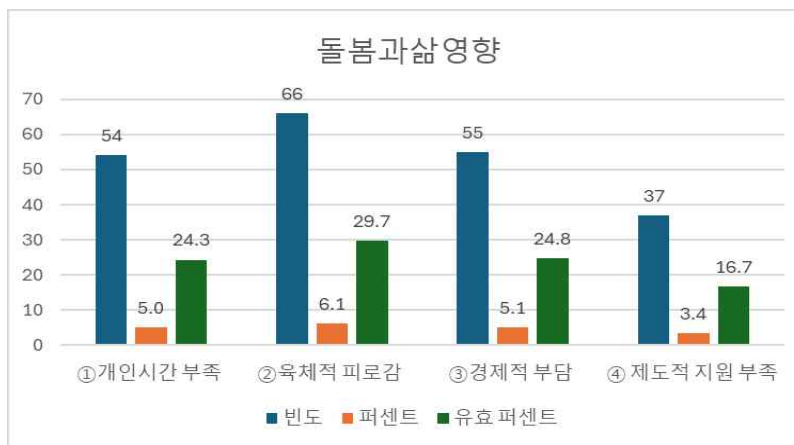
왔다.

최종 학력 * 돌봄 시간 교차표

1시간의 돌봄 시간은 대학원 졸업은 평균보다 15%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있는지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①개인시간 부족	54	5.0	24.3
	②육체적 피로감	66	6.1	29.7
	③경제적 부담	55	5.1	24.8
	④ 제도적 지원 부족	37	3.4	16.7
	오류	10	0.4	1.8
	합계	222	20.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62	79.5	
합계		1084	100.0	



육체적 피로감 29.7%, 개인적인 시간 부족 24.3%, 경제적 부담 24.8%, 제도적 지원 부족 16.7% 순이다. 오류는 중복으로 응답한 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권역 * 돌봄과 삶 영향 교차표

돌봄이 삶에 주는 영향은 개인 육체적 피로감, 경제적 부담, 개인 시간 부족의 순서였고, 영남은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다고 했고, 제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36.4%로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지자체 * 돌봄과 삶 영향 교차표

돌봄과 삶의 영향에 대한 지역별 차이로 제천은 개인 시간 부족이 낮고 육체적 피로가 제일 높은 게 응답했고, 군포와 제주가 제도적 지원 부족에 높게 답변하였다.

성별 * 돌봄과 삶 영향 교차표

성별 차이 없음

연령대 * 돌봄 영향 교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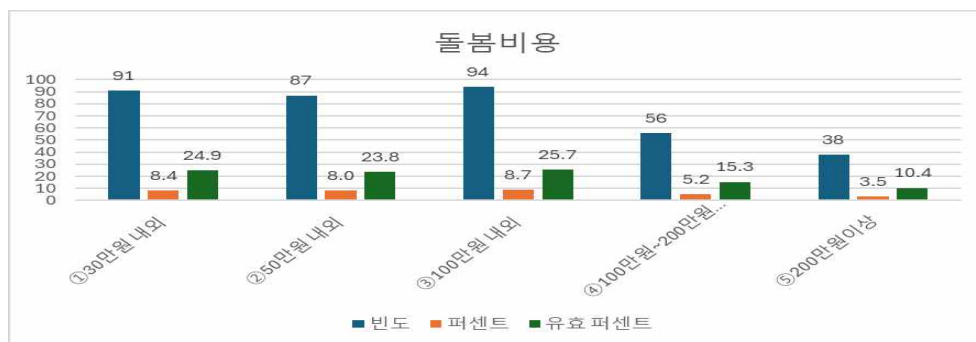
돌봄이 영향에 대해서 나이별로 30대와 40대는 개인 시간 부족을 50대는 육체적 피로감을 높게 답변했다. 제도적 지원의 부족은 30대가 높게 응답했다.

최종 학력 * 돌봄과 삶 영향 교차표

돌봄이 영향은 고졸이 경제적 부담에 높게 응답했다.

현재 돌봄에 사용되는 한 달 평균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①30만 원 내외	91	8.4	24.9
	②50만 원 내외	87	8.0	23.8
	③100만 원 내외	94	8.7	25.7
	④100만 원~200만 원이라	56	5.2	15.3
	⑤200만 원 이상	38	3.5	10.4
	합계	366	33.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18	66.2	
합계		1084	100.0	



100만 원 내외 25.7%, 30만 원 내외 24.9%, 50만 원 내외 23.8%, 100만 원~200만 원 15.3%, 200만 원 이상 10.4% 순이다.

권역 * 돌봄비용 교차표

돌봄의 비용은 100만 원 이하의 답변이 평균 74.3%였고, 충북 강원지역이 100만 원 이하 88.2%이고 100만 원 이상이 11.8%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다고 응답했다.

지자체 * 돌봄비용 교차표

돌봄의 비용은 100만 원 이하가 74.3%이고 비용에 대한 지역 차이는 원주가 100만 원 이하로 100%로 응답한 것 이외의 차이는 낮았다.

성별 * 돌봄비용 교차표

성별 차이 없음

최종 학력 * 돌봄비용 교차표

돌봄비용은 고졸은 100만 원 이하에 90%이고 대학과 대학원 이상은 70% 정도이었다. 고학력일수록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가 높다고 응답했다.